

Z세대가 역사를 만든다

(사드주네와 기계들 옮김)

저작권 없음

이걸 마음껏 복제하세요! 인쇄해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하세요!

웹에 올려주세요. 소문을 내주세요! 우리의 반란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 책
을 읽은 후에는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여행할 때도 가지고 다니며 전해주세요!
연락을 원하시면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paulobanion2@gmail.com
이 책은 www.eroseffect.com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연대, 그리고 혁명!

목차

1. Z세대가 역사를 만들다
2. 전 세계 Z세대 봉기
3. Z세대 반란: 사회정의의 기쁨을 위해
4. 스리랑카 청년: 당신들이 시작한 일을 보라!
5.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방글라데시
6. 인도네시아 계급 투쟁 관찰
7. 네팔, 에로스 효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 에로스 효과
9. 모로코 Z세대 212: 지나치게 인본주의적, 지나치게 인간적인
10. Z세대의 뿌리와 토대: 상식에서 정동성으로
11. 가자 학살 반대 캠퍼스 점거 운동
12. 도널드 트럼프, 기업 귀족층, 그리고 세계의 이스라엘화
13. 후기: 타나토스의 효과

Z세대가 역사를 만든다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Z세대의 봉기가 나라마다 휩쓸며 죽음보다 생명을 요구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의 엘리트 부패, 인도네시아의 경찰 폭력, 가자에서의 이스라엘 학살, 케냐의 증세, 이란의 강제 히잡 착용, 페루의 의무적 연금 제도, 모로코의 터무니없이 부족한 병원 예산, 마다가스카르의 전기·수도 같은 기본 서비스 부재 등 어떤 문제든,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 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2025년은 1968년처럼 세계사적 규모의 글로벌 봉기가 일어난 해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Z세대의 봉기 물결은 1980년대 초 세계적 군축 운동, 2011년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 사파티스타부터 시애틀까지의 반세계화 저항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필리핀(1986년), 한국(1987), 베트남(1988), 티베트, 대만, 중국(1989), 네팔과 방글라데시(1990), 태국(1992)에서 일어난 연쇄 반응을 잇는다.

우리는 이 소책자를 통해 사람들이 Z세대의 영웅적 행동을 지속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모두 최근 봉기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국가들 안에서 모든 인간은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매일 진행 중이다. Z세대가 놀랍게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전투적인 거리 시위다.

Z세대의 봉기는 서로 국제적 공명을 이루며 일어났다. 그들의 화산 같은 폭발은 세 정부를 무너뜨렸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다른 정부들을 변화하도록 강요했다. 선거가 아닌 전투적인 거리 행동이 방글라데시, 네팔, 마다가스카르에서 국가를 무너뜨렸고, 세 대륙의 정부에 개혁을 강요했다. 대가는 컸다. 2,000명 이상의 반란군이 법과 질서 세력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이전에는 자기애적인 '인터넷 시대의 아기들'이자 '잃어버린 세대'로 불렸던 Z세대의 최근 희생은 세계적 담론을 바꾸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할 이중 권력 기관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영감을 주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 언어,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 봉기들은 점점 더 서로 유사해지며 수렴해 갔다. 동일한 원피스(One Peace, 평화) 해적 깃발이 열 개국이 넘는 국가의 거리에서 휘날렸다. 같은 깃발을 게양한 이 우연한 일치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다. 이 모든 운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이들은 모두 지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했다. 자발성, 자율성, 다양성, 연대라는 공통된 문법을 공유한다. 이들 운동 중 어느 것도 중앙집권적 지도부를 갖거나 전통적 정당에 의존하지 않았다. 많은 운동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예고나 의도 선언 없이 하룻밤 사이에 등장했으며, 정부는 다가올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대표자들이 선거로 선출되든 엘리트에 의해 지명되든, 공화정 체제의 부패와 부적절함에 맞서 Z세대 봉기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단이든 공산주의자든 이슬람주의자든 원시적 파시스트든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에게 권력을 요구한다. 정치적 공백 속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이끌도록 지명되었다. 네팔에서는 전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가 임시

총리로 승인받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소액대출의 선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임시 정부의 수석 고문이 되었다.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일부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무너뜨린 정부가 해산된 후 임시 정부에 참여하기로 선택했다.

분명 우리는 국민(민족)국가보다 더 나은 자치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동질 집단, 노동자나 학생 단위,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어떤 집단으로든 거리로 나설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풀뿌리에서 새로운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평의회를 구성하고 어떤 엘리트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Z세대의 반란 – 사회정의의 기쁨을 위해

타소스 타르기스(Tasos Sagris)

우리는 위기가 일상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산티아고에서 자카르타까지, 아테네에서 카트만두까지, 파리에서 오클랜드까지, 새로운 세대들은 거리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경찰과 맞서싸운다.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리라 기대해서도, 시위나 개혁을 통해 삶이 나아지리라 희망해서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삶이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빈곤,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정치적·사법적 부패, 국가 탄압과 경찰 살인, 주택 및 에너지 위기, 환경 파괴와 기후 재앙, 무분별한 이윤 추구와 모든 생필품 가격 상승, 희망과 전망의 부재, 생존을 위한 일상의 불안과 슬픔, 고통—이 모든 것이 수십 억 사람이 경험하는 글로벌 사회 조건의 공통 분모가 되었다. 젊은 세대—소위 Z세대—는 자본주의를 '기회의 체계'가 아닌 배제와 소진, 삶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으로 경험한다.

젊은이의 반란은 지역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 미래 없는 소비자로 전락한 인간, '개발'이라는 이름의 자연 약탈이라는 착취 구조 그 자체에서 비롯된 세계적 사건이다. 보편적 지배 형태로서 자본주의는 또한 보편적 분노의 경험을 생산한다. 이 공통된 경험에서 봉기의 새로운 주체성이 탄생한다. Z세대—세계적 프롤레타리아트, 주변화되고 미래 없는 존재이면서도 상상력과 유머, 추진력, 삶과 정의, 평등,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당, 의회, 기술관료들의 '진지한 정치'라는 전통적 정치는 점점 더 허술하고 부적절하며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장 폴 사르트르가 말했듯, 우리는 에스프리 드 세리우스(esprit de sérieux)에 맞선다. 즉 '진지함의 정신'으로 위장한, 가능한 것의 세계적 독점이라는 그 특정한 지배 형태에 맞선다.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외부적이고 초월적이며 불변의 사실로 강요한다. 마치 그들의 원칙이 절대적 기술관료주의의 초월적 영역에 영원히 새겨진 것처럼 말이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썼다. “진지한 인간은 가치라는 안락한 물질적 지지에 의지해 산다. 그는 사물을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하며 의무를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는 “침묵의 명령들”—시스템 자체의 지시에 불과한 명령들—에 대한 수동적 복종을 선택함으로써 자유의 불안을 회피하는 삶이다.

새로운 세대는 이 강요된 진지함의 정신을 거부하며, 아이러니와 예술, 창조, 반란을 통해 이를 해체한다. '진지한 정치'가 국가와 시장의 구조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때, Z세대는 거부와 철수, 방해, 냉소, 창조적 불복종, 군대와 경찰 세력과의 대결로 응답한다.

“진지한 정치”的 종말

“진지한 정치”는 자본주의가 정당성의 환상을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도가 개혁될 수 있다는 신화, “성장”과 경제 지표를 통해 빈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화, 국가 폭력이 단지

필요한 “예외”에 불과하다는 신화를 유지한다. 이는 재앙을 정상화하는 정치다.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정부, 정당, 기관, 기업, 국제기구—모두 “진지함”이라는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진지함은 불평등, 전쟁, 생태계 붕괴, 병적인 소비, 집단적 정신 질환을 양산하는 기존 질서를 방어하는 것에 불과하다.

Z세대는 ‘진지한 담론’이 단순히 권력의 수사임을 이해한다. ‘책임감 있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언어가 빈곤과 폭력, 복종을 강요할 때 아무 의미가 없다. 체제의 현실주의는 사실 가장 위험한 환상이다. 지구가 붕괴하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환상이다.

이러한 진지함에 맞서 Z세대는 역전을 제안한다. 아이러니, 집단성, 반항, 창조를 위한 정치. 위계도, 권력의 의식도 없는 정치. 비정치적 무관심이 아닌, 돌봄과 상호부조, 자조적 조직화를 통한 일상의 불복종을 위한 정치.

Z세대의 반란: 평행 위기의 세계 – 글로벌 갈등의 현장

2010년대 후반부터 지구 전역에 지하 저항 리듬이 고동쳐 왔다. 단일한 통일 운동이 아닌, 사회 분노의 급진적 폭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소외 계층인 젊은이들이 빈곤, 부패, 국가 폭력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봉기들은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경제적 질식, 사회적 불의, 정치적 기만의 조건 아래서 탄생하며, 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다. 비록 종종 일시적으로 패배하지만, 자유와 집단적 힘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남기며, 이는 나중에, 다른 곳에서, 동일한 이유로 다시 폭발한다.

칠레 2019: 세계적 서막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은 수십 년 만에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봉기를 촉발했다. “30페소가 문제가 아니다, 30년이 문제다”라는 구호는 불평등과 신자유주의적 파괴에 대한 저항의 외침이 되었다. 빈민가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고, 학생과 노동자가 연대했으며, 정부는 군대와 고문으로 대응했다.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헌법 개정 절차를 이끌어냈다. 비록 새 헌법이 후에 거부되긴 했지만 말이다. 칠레는 두려움 없는 세대가 독재 정권으로부터 물려 받은 강요된 침묵을 깨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이지리아 2020: 경찰 폭력에 대한 분노

#EndSARS 운동은 고문과 살인으로 악명 높은 경찰 부대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으나, 곧 부패와 실업에 맞선 대규모 봉기로 번졌다. 수천 명이 라고스와 아부자를 가득 메우며 분노를 자발적 조직화로 전환했다. 국가 탄압은 레키 통행료 징수소 학살로 정점을 찍었다. 진압되었음에도 #EndSARS는 청년 저항의 세계적 상징이자 새로운, 구속받지 않는 나이지리아 세대의 탄생을 알렸다.

미국 2020: '소수자'가 사회적 다수가 될 때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는 미국 역사상 최대 사회운동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BLM) 봉기를 촉발했다. 수백만 명이 경찰 폭력과 체계적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상과 불평등·착취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 선거와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부분적 흡수에도 불구하고, BLM은 한 세대의 정치 언어, 시위 조직 방식, 집단적 인식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레바논 2019-2021: 환상의 붕괴

경제 붕괴, 부패, 세금 인상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외침을 촉발하며 지배 계급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드러냈다. 베이루트 항구 폭발은 치명적인 국가의 무책임함을 폭로했다. 탄압, 이주, 이스라엘 공습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청년들은 국가를 둘러싼 모든 권력 엘리트의 도덕적 파산을 폭로했다.

홍콩 2019-2020: 초강대국과의 싸움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로 시작된 운동은 자유와 존엄을 위한 대규모 청년 봉기로 발전했다. 직접 행동과 수평적 조직화에 고무된 시위대는 베이징의 통제와 신자유주의 질서에 맞섰다. 세계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봉기는 진압되었고,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의 해방 한계가 드러났다.

이란 2022: 최전선의 여성들

“도덕 경찰”에 의한 마흐사 아미니 살해 사건 이후, 이란 청년들은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 아래 일어섰다. 이는 성별 억압에 대한 반란일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국가 통제와 폭력에 대한 반란이었다. 처형과 체포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깨졌고, 중동에서 페미니스트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상상력이 탄생했다.

스리랑카 2022: 발전 신화의 종말

경제 붕괴, 기아, 연료 부족이 시민들—대부분 청년—을 대통령궁 점거로 몰아넣었다. “민중 혁명”은 라자팍사 가문을 축출했으나 권력은 곧 재편되었다. 스리랑카는 수평적 자치 구조 없이는 승리가 동일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카타르시스와 일시적 안도감으로 빠르게 전락함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2023: 불안정 계층의 사회적 폭발

연금 개혁이 촉매였으나, 진정한 원인은 소진이었다—노동이 더 이상 존엄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 청년, 노동자, 학생들이 거리를 메운 가운데, 나헬 메르주크 살해 사건 이후 교외에서 발생한 폭동은 프랑스 공화국의 인종적 균열선을 드러냈다. 부분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사회적 분노와 혁명적 유산이 맞부딪히는 핵심 장소로 남아있다.

인도네시아 2020-2025: 미래 없는 노동

2020년 '옴니버스 법'은 노동 규제 완화와 '투자'라는 명목으로 환경 파괴를 초래하며 학생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경찰과의 충돌은 자연과 인간 생명을 모두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실체를 드러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생태·노동 운동의 새로운 수평적 네트워크가 등장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자결권을 연결시켰다.

2025년 8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발리 전역에서 물가 상승, 실업, 부패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재점화되었다. 학생과 노동자들은 대학과 공공장소를 점거하며 "빛 없는 삶"과 "존엄한 노동"을 요구했다. 이 봉기는 반자본주의와 생태를 동일한 투쟁으로 인식하는 동남아시아 세대의 등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케냐 2024: 재정 약탈에 대한 분노

케냐 청년들은 급증하는 세금과 생활비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한 시위는 빈곤, 실업, 엘리트 부패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정부가 세금법안을 철회했지만 수십 명이 사망했다. 케냐는 아프리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조차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음을 증명했다.

페루 2022-2025: 정치의 재창조

교사 출신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요의 축출은 안데스 고원부터 리마까지 반란의 물결을 일으켰다. 농민, 원주민 공동체, 청년들은 '의회 쿠데타'라 규정한 사건에 맞서 새로운 헌법 제정 의회를 요구하며 단결했다. 탄압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자발적 연대 네트워크와 지역 의회는 성장했다.

2025년이 되자 식량 위기와 에너지 민영화가 대규모 시위를 재점화했다. 시위로 시작된 움직임은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운명론에 굴복하지 않는 Z세대가 주도하는 거대한 반국가 봉기로 변모했다. 페루의 반란은 아래로부터의 정치 재창조를 보여준다. 자기 조직화와 상호 원조에 기반한 공동체적 자치의 형태다.

그리스 2023: 민영화와 부패에 대한 분노

57명의 젊은이를 죽인 템피 열차 참사는 국가와 기업 권력의 치명적 부패를 드러냈다. 민영화된 철도 붕괴는 신자유주의 효율성 신화를 무너뜨렸다.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라고 외쳤다. 비록 짧았지만, 이 봉기는 2015년 패배 이후 무관심에 빠진 사회에서 Z세대의 정치적 귀환을 알렸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자와 극우 정치인들의 연합은 폭력, 사법적 은폐, 재벌 통제를 통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2024-2025: 반항적 빈곤의 존엄성

폭발은 2024년 쌀, 식용유, 연료, 임대료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며 수백만 명을 절망으로

내몰면서 시작되었다. 세계적 의류 다국적 기업을 위해 굶주림 수준의 임금으로, 보호나 존엄성 없이 일하며 자란 세대는 궁극적 불의를 마주했다. 세계를 위해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이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초기 평화적 시위는 다카와 치타공 공장 밖에서 경찰이 학생과 노동자를 공격하면서 대규모 충돌로 번졌다. 존엄성에 대한 요구는 부패, 권위주의 통치, 다국적 기업의 착취에 맞선 자유 요구와 합쳐졌다.

2025년이 되자 의류 파업은 공개적 반란으로 번졌고, 학생과 여성 노동자들이 조직 및 상호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가 살인과 체포로 대응했음에도 이 봉기는 세계 자본주의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방글라데시의 Z세대는 자선이나 개혁이 아닌, 그들의 빈곤 위에 세워진 체제 자체의 폐지를 요구한다.

네팔 2025: 팬데믹 이후 빈곤의 폭발

2025년, 네팔의 Z세대는 카트만두 거리를 가득 메웠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 금지령에 항의하다가, 인플레이션과 부패, 실업에 분노를 터뜨렸다. 시위대는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과 청년들의 해외 대이동을 규탄했다. 폭력적 충돌이 이어졌고, 정부가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일상적 고통은 지속되었다. 청년 주도 봉기는 정부를 무너뜨렸으며, 이는 전 세계적 절망의 패턴을 드러냈다. 직업이 아닌 생존권을 요구하는 세대의 외침이었다.

세르비아 2024-2025: 청년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균열

노비사드 기차역 붕괴 사고로 16명이 사망한 후 학생 반란이 터져 나왔다. 이 사고는 국가 부패와 정치인-기업인 유착을 드러냈다. 청년들은 정의, 사회적 평등, 무료 교육을 요구했다. 정권은 유지되었지만, 이 봉기는 동유럽 청년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사이의 갈라진 틈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분열은 지역 전체로 깊어질 운명이었다.

팔레스타인 학살 반대 전지구적 운동(2023-2025): 반란으로서 연대

2023년 가자 학살 이후 테헤란에서 뉴욕, 나이로비에서 상파울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시위 물결이 일어났다. 수백만 명이 서방의 방조 아래 이스라엘이 자행한 학살을 규탄했다. 학생들은 대학을 점거했고, 노동자들은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을 보이콧했으며, 예술가와 학자들은 '중립성'의 의미를 의문시했다.

이 봉기는 비록 분산적이었지만, 세계적 상상을 산산조각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양이 공개적으로 식민지 야만의 주체로 인식된 것이다. 이 운동은 연대를 넘어선 것이었다. 진실과 삶이 권력과 이윤과 충돌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탄압과 체포,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적 저항의 불꽃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주의-학살과 인종주의, 제국주의적 오만에 맞서는 존엄의 정치-에 계속 영감을 주고 있다.

불길이 지나간 뒤 남은 것은?

지난 5년간 대륙을 가로지른 봉기들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분노는 어떻게 지속적인 자유가 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투쟁은 광범위한 수평적 구조와 급진적 변화를 위한 혁명적 프로그램 없이는 국가와 자본이 재빨리 통제권을 되찾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칠레에서 스리랑카까지, 라고스에서 파리까지, 권력자들은 적응하고 개혁하며 약속하지만 결국 일상적 폭력을 복원한다. “진지함”이 다시 자리 잡는다. 99% 대중은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미성숙함과 파괴 행위, “무책임함”으로 비난받는다. 마치 사회가 영원히 부유한 아이들에게 통치당해야 하는 유치원인 양 말이다. 권력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당, 새로운 위협, 더 많은 경찰과 함께 돌아온다. 다시 한번 “진지한” 정치 질서가 가능한 것의 폭정-1%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며 돌아온다.

그러나 모든 불꽃은 역사의 피부에 흔적을 남긴다. 청년들의 반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저항의 새로운 윤리로, 연대의 네트워크와 자발적 조직, 자유주의 문화로, 우리가 거리와 바리케이드 뒤에서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의 기억으로 변모한다. Z세대는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주인 없이 살기를 원할 뿐이다. 그리고 반란이 사그라드는 듯 보일 때조차, 그 흐름은 지하에서 계속된다. 다음 폭발을 준비하며.

최근 수십 년을 돌아보면 동일한 원인이 유사한 폭발을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봉기는 공유된 전지구적 위기의 지역적 표현이다.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유사한 저항을 낳는다. 청년들은 불공정한 체제에서 '일부 몫'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체제의 종말을 요구한다. 그들은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관리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시장 자체의 제거를 위해 싸운다. 지구촌 Z세대 봉기를 하나로 묶는 것은 정당 이념이 아니라 억압의 공유된 경험이다. 이 차이 속의 통일성은 들판과 과타리의 '유목적 전쟁 기계'를 떠올리게 한다. 배제된 대중들, 중심도 계층도 없지만 리듬과 창의성, 속도로 가득 찬 존재들을. 이들은 “전쟁 기계는 국가 외부에 존재하며, 국가를 해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썼다. 새로운 봉기들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기능한다. 일시적인 자율지대를 창출하고, 정상성의 체제를 깨뜨리며, 권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이동형 저항 형태로서.

점거운동에서 Z세대의 광범위한 반란까지

2011-2012년 글로벌 점거운동은 디지털 시대의 첫 번째 큰 균열이었다.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 뉴욕의 주코티 공원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들은 경제적 불평등,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시장의 독재적 지배를 규탄했다. 2008년 위기의 세대인 그들은 야영지와 집회를 조직했으며, 처음으로 글로벌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의 추진력은 체제 내부에 머문 정치의 한계와 충돌했다: “99% 대 1%”라는 대중적 구호는 도덕적 차원에 머물렀을 뿐 실존적 차원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가의 형태나 노동의 형태 자체를 결코 문제 삼지 않았다.

15년 후 등장한 Z세대는 훨씬 더 황폐해진 세상—따라서 훨씬 더 솔직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세대는 더 이상 개혁을 ‘믿지’ 않는다. 미래의 잔해 속에서 자라난 세대다. 권력을 장악할 필요조차 없다. 권력이 이미 데이터와 알고리즘, 환경, 그리고 신체 자체로 분산되어 있

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점거운동이 도시 안에 '자율 공간'을 구축하려 했다면, Z세대는 네트워크화된 공동체와 분산된 운동, 일시적인 연대를 통해 영구적인 자율 상태에 산다.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봉기의 상상력이다. 더 이상 '공공 공간 점유'가 아니라 살아가는 경험 그 자체를 되찾는 것이다. 정치는 더 이상 시위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점거운동은 집회의 유토피아를 꿈꿨다면, Z세대는 일상적 행동의 유토피아를 살아간다. 작고 일상적인 불복종, 돌봄 공동체, 생태적 삶, 시스템과의 단절을 원한다. 더 이상 권력 장악이 아니라 소멸이다. 더 이상 선거, 사회민주주의, 위임은 없다. 의회의 완전한 소각과 민중회의(people's assembly)의 창설이 있을 뿐이다. 항의와 개혁이 아닌, 절망자들의 봉기다.

점거자가 새로운 상징적 중심을 추구했다면, Z세대는 그런 중심 없이 움직인다. 이는 유동적이고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네트워크다. 대표되지 않으며, 협상하지 않고, 서명할 청원도 없으며 기존 질서에 희망을 걸지도 않는다. 홍콩과 미얀마에서 산티아고와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반란의 형태는 동일하다. 빠르고, 창의적이며, 비계층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다.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고, 권력을 막고, 질식시키고, 시들게 하려 한다.

들뢰즈가 말했듯, 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흐르고 연결하기만 하는 욕망이다. 하킴 베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학, 소셜미디어, 거리, 직장, 나이트클럽, 점거된 지역, 상호부조와 돌봄의 작은 공동체 등 어디에서나 폭발하는 수천 개의 '임시 자율 구역(TAZ)'이다. Z세대는 감히 "미래가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하는 세대다.

환상 없이 반란의 과거를 바라보며

21세기 운동의 역사는 현대 사회 봉기의 한계를 가르쳐준다. 아랍의 봄은 권위주의와 마주했고, 점거운동은 트럼프의 부상과 미국 내 파시즘의 강요로 답을 받았다. 인디그나도스 운동은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좌파의 시체를 잠시 되살렸지만, '가능한 것'을 관리하는 데의 참담한 실패, 좌파 정당들의 봉괴와 해체는 수백만 마음속의 희망을 죽였다. 이 모든 운동은 대중의 정당한 분노에서 태어났지만, 곧 '진지한 정치'의 논리에 갇혀버렸다. 반란이 지도자와 정당, 제도적 야망을 낳자마자 그 생생한 힘은 사라졌다. 위임이 돌아왔고, 대중은 곧 사생활로 후퇴했다. 혁명적 에너지는 정부주의와 현실주의, 즉 복종으로 변질되었다.

동시에 무정부주의 단체들은 여전히 분열되고, 조율되지 않으며, 현재를 넘어선 삶을 조직할 진지한 계획이 부족했다. 수백만 명이 강압과 명령 없는 삶을 약속하는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무정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내부 불일치를 관리하는 무정부주의적 방식과 무정부주의적 이상에 따라 현대 사회 생활을 조직하는 실질적 형태를 발명하는 데 실패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미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Z세대가 직면한 큰 도전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혁명이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정당, 새로운 권력 형태로 끝나거나 사소한 다툼, 비공식적 위계, 개인적 경쟁으로 해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에리코 말라테스타가 경고했듯, 무정부주의자의 임무는 혁명 이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막는 것이다. 그는 "혁명은 특권을 파괴하고 새

로운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창조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썼다. 낡은 것을 허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시작해야 한다.

기술적 소양,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문화를 지닌 Z세대는 이미 계층을 초월한 자발적 조직화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거리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은 수평적이고 직접적이며 급진적 평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폭발적 순간이 아닌 창조적 정치적 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반란과 돌봄, 분노와 건설, 파괴와 연대를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우리는 물질적 현실 전체를 개방적이고, 집단적이며, 필터링 없이, 어디서나 ‘자유 생중계’해야 한다.

자유 이론: 포스트-아나키즘에서 Z세대의 상상력으로

지난 35년간 수천 명의 아나키스트들은 앞선 세대의 아나키스트들이 창출한 용감한 혁명 사상을 수호하기 위해 영웅 행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현재를 해체하고 미래를 위해 싸우기 위해 필요한 대담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상상할 용기를 가진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무정부주의자들은 행동에서는 여전히 대담하지만, 사고에서는 종종 같은 용기를 결여한다. 그리고 바로 이 혁명적 사고가 지금 무정부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수백만 명이 권력에 대한 저항 행위에서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울 뉴먼과 토드 메이, 하킴 베이, 조지 카시아피카스, 리처드 길먼-오펠스키, 크림스인크, 보이드 네트워크, 피터 갤더루스, 데이비드 그레이버, 스테븐 슈카이티스, 존 홀로웨이 등 수많은 무정부주의자 및 반권위주의 공산주의 이론가, 출판 집단, 정치 단체, 사회 운동가들이 이 새로운 정치 형태를 조명해 왔다.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도 권력을 폐지할 수 있는, 중심이 없는 혁명적 정치 영역이다. 뉴먼은 “권력은 더 이상 우리가 전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해체해야 할 관계의 그물망”이라고 쓴다. 하킴 베이는 일시적 자율 지대 (TAZ)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 질서 안에서 발생하는 자유의 순간들로, 지배 문화를 지금 여기에서 전복한다.

모든 자기 조직화는 상품의 권력에 대한 균열이다. Z세대는 이미 자신들만의 TAZ를 창조해 냈다. 점거 주택, 축제, 디지털 네트워크, 연대 공동체, 점거 주택 단지, 자치 작업장, 공동 부엌 등에서 말이다.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저항은 종종 제스처, 비밀 신호, 게임 채팅 속 메시지, 혼잡한 교차로에서의 은밀한 만남 등의 형태를 띤다. 운동은 때로 수년간 보이지 않고 침묵한다. 미로 같은 지하 과정, 토론, 이론적 논쟁, 사회의 기초에서 개미처럼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은 공개적 폭발과 국제적 가시성의 순간까지 지속된다.

들뢰즈와 과타리가 말했듯,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생산적 힘”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의 욕망은 이미 시장 너머, 국가 너머, 이윤 논리 너머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에리코 말라테스타가 한 세기 전 감히 상상했던 무정부주의적 자유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의 무다. 권위의 폐지와 지역적·국제적 연대 네트워크를 통해 삶을 공동으로 규제하고 연결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을 창설하는 것이다. Z세대는 이 자유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다. 개인

의 자의성이 아닌 공유된 자율성, 강압 없는 사회적 공존의 형태로서.

실현된 행복을 위한 투쟁

우리 세대의 과업은 자본주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초월하는 것이다. 상사, 은행, 국가, 정당의 세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혁명은 더 이상 진지함의 위엄이 필요하지 않다. 삶의 정직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복수다. 새로운 봉기는 파괴만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노동이 생존과 결부되지 않고, 재화가 자유롭게 공유되며, 돌봄이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인 사회를 그려내는 능력이다. 국경도, 성별·인종·출신·피부색·민족의 구분도 없는 풍요로운 전지구적 공동체—공동 소유와 자발적 협동의 사회다.

Z세대는 모든 형태의 독단주의를 경멸하고 실현된 행복을, 소비, 선거 위임, 복종이라는 사적인 환상이 아닌, 상호부조와 창의성, 자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행성적 혼란(카오스)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일은 진지하게 꿈꾸는 것이다.

지배와 권위의 '진지한 정신'은 인류가 자신의 가능성을 미성숙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겨 스스로에게서 숨기는 방식이다. Z세대는 우리 시대 유일하게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세대다. 삶과 자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혁명은 순간적인 파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기를 넘어 인류에 대한 사랑의 행위다. 이 사랑—집단적이고 평등하며 무정부적이고 혁명적이며 한계 없는—은 오늘날 인간 세계를 위한 유일한 현실적 제안이다.

시인이자 연극 감독인 타소스 사그리스는 그리스 아테네에 기반을 둔 국제 무정부주의 단체 보이드 네트워크(Void Network)의 회원이다. <http://voidnetwork.gr>

스리랑카 청년들: 너희가 시작한 일을 보라!

조지 카치아피카스

2022년 7월 9일 아침, 그날 콜롬보에서 시작된 사례가 곧 전세계로 퍼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에서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유사한 대립으로 이어질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7월 9일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용감하게 경찰의 최루탄을 물리친 그 젊은이들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호화로운 관저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에 차 있었다. 그들은 그의 수영장에서 뛰놀고, 그의 샴페인을 마셨으며, 그의 풍부한 식량 비축품으로 텅 빈 배를 채웠다.

3년 후 그들이 세운 본보기가 네팔 정부 건물, 의회, 대법원의 대규모 방화로 이어질 것이 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네팔 Z세대의 허리케인급 봉기는 스리랑카의 아라갈라야(투쟁)를 고요하고 온건해 보이게 만들었다. 비록 당시 라자팍사 일가는 시위대에 겁을 먹어 마힌다 총리와 그의 형 고타바야 대통령 모두 숨어 지내야 했으나—전자는 외딴 해군 기지에서, 후자는 해군 함정에서.

'경제 위기'라는 용어는 2022년 스리랑카인들이 겪은 모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정전, 연료 부족, 높은 실업률, 그리고 식량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만연했다. 그와 동시에 엘리트들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 상사들이 없어도 하인들이 상주하는 여러 개의 호화 저택을 누리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라, 라자팍사!'와 '집으로 돌아가라, 고타!'를 외친 게 이상한 일일까? 운동이 탄력을 받으면서 그들의 구호는 '투쟁의 승리!' (Aragalayata Jaya Wewa)로 바뀌었는데, 이는 인식한 불의에 대한 반란이 새로운 현실을 향한 혁명적 열망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20년 전만 해도 전국의 절반에 불과한 지역에서만 전기가 공급되었고, 학교와 일자리,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거의 이용 불가능했던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2022년 젊은이들의 기대와 엘리트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고통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져만 갔다. 폭발은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이었다. 밤새 이어진 조용한 촛불 집회는 2022년 3월 31일 수백 명의 군중이 대통령 관저를 점령하는 사태로 번졌다.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시위는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진압했다. 다음날 아침 대통령은 '극단주의' 세력이 콜롬보에 '아랍의 봄'을 도입하려 한다고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무력화했다. 친라자팍사 세력이 젊은 시위대를 공격하자 보복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고, 이 폭력의 소용돌이는 부유층과 권력층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휩쓸었다. 어부, 크리켓 선수, 목수, 여성 단체까지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합류했다. 야간 통행금지령과 일시적인 소셜미디어 차단조차도 이 운동을 막지 못했다.

갈레 페이스 그린 공원을 점거한 시위대는 24시간 운영되는 거점을 확보했다. 정부는 저항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휴대폰 신호 방해 장비를 동원했으나, 국민들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월가 점거 운동의 야영지와 유사하게, 갈레 페이스 점거 운동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지자 규모 모두에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유명 인사들이 고립된 시위대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달 말까지 1,000개 이상의 노조가 하루 동안 지지 파업을 벌였다.

대학생들이 주도한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모든 의원의 사퇴와 라자팍사 일가의 횡령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건 우리 나라지, 너희들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2022년 4월 13일 스리랑카 대통령 비서실 앞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사진: AntanO)

5월 9일, 타밀족 학살자 마힌다 라자팍사는 지지자들을 조직해 갈레 페이스 그린을 대규모로 습격했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100명 이상이 심하게 구타당해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가해자들의 잔혹함은 즉각 국민을 ‘국가 후원 테러’에 맞서게 했다. 바로 그날 마힌다는 총리직 사퇴를 강요받았다. 라자팍사 충성파를 겨냥한 폭동이 확산됐다. 갈레 페이스 그린 공격을 위해 폭도들을 실어 나른 버스 다수가 불에 탔다.

라자팍사의 공격을 지지한 정치인들은 거리에서 구타당했으며, 상당수의 자택이 불에 탔다. 반란군의 폭력은 정확히 표적을 겨냥했다. 갈레 페이스 공격을 주도한 사나트 니산타의 집을 완전히 불태웠다. 라자팍사 박물관이 불에 탔고, 형제의 아버지 동상이 파괴되었으며, 가족 소유 주택 두 채가 파괴되었다. 가족 소유 호텔은 람보르기니, 허머, 캐딜락, 페라리와 함께 불에 탔다. 마힌다가 트링코말리 해군 기지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자, 군중이 기지를 포위하고 그의 체포를 요구했다. 격화되는 보복을 막기 위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군대에 ‘즉시 사격’ 명령과 24시간 구금 권한을 부여하며 거리 통제를 지시했다.

2개월간 지속된 시위와 탄압은 7월 9일 정점에 달했다.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자 고타 대통령은 공군 제트기를 타고 몰디브로, 이후 싱가포르로 도피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를 점거해 며칠간 공개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호화로운 관저를 구경하러 몰려들자 보안군들은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했다. 대통령 비서실, 총리 관저 및 사택도 모두 점거됐다. 불확실한 2주간의 상황은 7월 13일 새벽,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이 갈레 페이스 캠프를 폐쇄하기 위해 급습하면서 종결되었다. 점거된 건물들도 차례로 정리되었다.

군부에 의해 ‘질서’가 회복되었지만, 시위대는 주요 요구사항인 대통령 퇴진을 달성했다. 대통령은 10여 명의 친족들과 함께 도주했다. 11월이 되자 가스와 연료 대기 줄은 거의 사라졌고,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으며, 시민들은 라자팍사 가문의 권력 장악을 깨뜨렸다는 만족감을 누렸다. 오늘날 이 나라는 라자팍사가 국고를 약탈한 유산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다.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부패하고 권력에 굶주린 엘리트층에 대대적으로 맞서 그들을 권좌에서 몰아낸 스리랑카의 영웅적인 국민들은 투쟁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2022년에 세워진 이 모범은 이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에서 일어난 봉기들을 예고했다. 이들 모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 어느 것도 중앙집권적 지도부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 모두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다. 각 봉기는 정부가 다가올 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다. 각각 주요 정치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표적으로 삼았다. 표면상 ‘민주적’인 체제들을 겨냥했으나, 이들은 거리 시위 외에 민중 참여의 길을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이

들의 자발적 출현과 반부패 봉기의 성공은 각지의 기득권 엘리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잘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

조지 카시아피카스의 이 글 초고는 2025년 9월 18일자 콜롬보 텔레그램에 처음 실렸다. 그는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의 저자이며, 웹사이트는 www.eroseffect.com이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방글라데시

조지 카시아피카스

2024년 방글라데시 7월 혁명은 세이크 하시나와 그녀의 아와미 연맹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를 전복시켰다.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1,400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하고 20,000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에는 하시나가 봉기 과정에서 희생된 것으로 집계한 수십 명의 경찰과 정부 관료도 포함되었다. '인민의 바다'가 보여준 압도적인 용기가 없었다면 혁명은 실패했을 것이다. 2024년 8월 5일,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하시나 총리의 관저로 행진하며 그녀의 사임을 요구했을 때 민중의 승리가 찾아왔다. 경찰 저격수의 실탄 사격, 헬기에서 발사된 실탄, 드론, 쇠루탄, 섬광탄, 물대포 등 모든 수단이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 결의는 너무 나도 굳건해 육군·공군·해군 수장들은 눈물을 흘리는 하시나에게 “당신을 향해 오는 국민을 막을 수 없다”며 “도망칠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15년간의 장기 집권 끝에 ‘아시아의 철의 여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자 ‘최장수 여성 정부 수반’은 군 헬기를 타고 급히 국외로 도주했다. 몇 분 만에 수천 명의 군중이 그녀의 궁전 같은 저택을 점령해 모든 것을 약탈하며 기쁨에 찬 축제를 벌였다. 이후 몇 주 동안 수천 명이 더 몰려와 하시나가 자국민 살해를 모의했던 ‘악의 소굴’을 직접 목격했다. 인접국 인도에서 망명을 허가받은 하시나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녹음 기록이 반증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반역자’들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인터넷 차단은 정부 차원이 아닌 시위대가 자행한 것이며, 야당은 오로지 경쟁 정당들로만 구성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11월 12일, 그녀와 아와미 연맹 고위 지도자 2명은 Z 세대 봉기 당시 수백 명의 살해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로 결석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아와미 연맹 당원들은 계속해서 과도 정부에 맞서 움직이고 있다.

이 봉기는 방글라데시 실존의 상당 부분을 왜곡해 온 양당 대립 구도를 청산했다.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국민당(BNP) 간의 치열한 경쟁은 정부를 번갈아 가며 편파적으로 운영하게 했으나 국민을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다. 2009년 세이크 하시나가 집권한 이후 편파성은 반대 인사들을 투옥하거나 더 심한 처우를 가하는 억압적 불관용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강경 통치는 일부에게 강력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주었지만, 성장하는 경제에서 소외된 이들은 청년층이었다. 인구의 약 절반이 25세 미만이다. 청년들이 하시나에 맞서 시위를 벌인 근본적 동기는 일자리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하시나의 지시로 가장 안정적인 정부 직위의 3분의 1은 1971년 그녀의 아버지가 이끈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배정됐다. 전체 공무원 직위의 절반 미만만이 능력에 따라 선발되도록 했다. 그녀의 할당제(quota system)에 대한 청년들의 시위는 결국 그녀의 악명 높은 발언으로 이어졌다. “만약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에게 일자리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혜택은 배신자(라자카르)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정부가 그들을 모욕하고 탄압할수록 시위자들의 열망은 일자리에서 해방으로 바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여 결국 그들의 숫자와 결의는 막을 수 없게 되었다.

1990년에도 두 여당이 연합해 군사 독재자 H.M. 에르샤드에 맞서지 못하자 청년들이 국가의 주도권을 잡았다. 1990년의 역사적 봉기는 에르샤드의 투옥으로 이어졌다. 과도 정부가 집권해 민주적 개혁을 도입했으나, 8년 후 하시나가 선거에서 압승하자 새로운 독재 통치가 시작되었다.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 1990년 에르샤드 전복은 네팔이 절대군주제를 전복한 지 8개월 만에 일어났다. 방글라데시의 2024년 7월 혁명 1년 후, 인도네시아인들은 새 대통령 프라보워에 맞서 대규모로 봉기했고, 네팔의 Z세대는 그들의 '민주적' 정권을 무너뜨렸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아래 국가가 침체되자, 젊은 반란군들이 네팔의 국회, 대법원, 수십 개의 정부 청사를 불태워 새로운 과도 정부가 출범했다. Z세대의 새로운 일련의 봉기에서 반란의 동시성은 명백하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의 반군들은 공통된 종교도 없고 경제 위기 상황도 공유하지 않는다. 이들이 동시에 폭발한 가장 좋은 설명은 한 곳에서의 자유 투쟁이 다른 이들의 봉기를 자극한다는 점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내년 방글라데시 선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 나라는 이미 세계적 관심의 중심에 있으며, 성공적인 새 정권이 수립된다면 전 세계 국가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의 역사가 주는 교훈 중 하나는 대표적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를 포함시키지 못한 실패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숙의와 의사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몇 년마다 치러지는 일상적인 선거를 '진정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을까? 오래전 바바사해브 암베드카르는 경고했다. "의회 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외면했으며...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소외된 계층의 경제적 불안을 끊임없이 가중시켜 왔다." 오늘날 방글라데시에서 구상 중인 새 체제는 의회 공화국의 한계를 경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월 봉기는 방글라데시를 전례 없는 국제적 리더십 위치에 올려놓았다. 다가올 새 체제의 성패는 세계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조지 카시아피카스의 이 글 초고는 2025년 9월 27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벵골》지에 실렸다. 그는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의 저자다. 2010년 다카에서 1990년 봉기 기념 회의를 조직하는 데 기여했으며, BNP와 아와미 연맹 양측 대표가 참석했다. 그의 웹사이트는 www.eroseffect.com이다.

인도네시아 계급 투쟁 관찰

풀 오배니언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수년간 가장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다. 2025년 8월 말 최근 거리 시위의 근본 원인은 국가의 믿기 힘든 불평등과 뿐만 아니라 깊은 정치 계급의 통치에 있다. 이미 극심한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은 2019년 이후 16% 감소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오만해지고 있다. 수백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고, 저소득 근로자들은 더 적은 임금과 더 긴 주당 근로 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받고 있다. 2025년 2월 근로자 평균 월급은 309만 루피아(약 200달러 미만)였다. 실업률은 15%를 유지하며 청년층은 더 높아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프라보워는 수백만 학생 대상 일일 급식 제공, 군사비 증액 등 야심찬 국가사업을 추진하며 자카르타의 지방 정부 지원금을 삭감했고, 이에 지방 정부는 급격한 지방세 인상을 단행했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회는 자신들의 월간 주거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의원들의 월 총소득은 1억 루피아(6,000달러 이상)를 넘어섰다. 그들의 소득세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자, 그들의 반응은 오래지 않아 나타났다.

2025년 8월 초, 평소 한적한 중부 자바의 파티에서 주민들은 군수(郡守)가 토지세를 250% 인상하려는 계획에 격렬히 반발했다. 수데워 군수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급감으로 물려설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위대는 마을 광장을 점거했다. 기부된 식량 상자가 어려운 시민들을 돌보기 위해 쏟아져 들어왔다. 경찰이 모든 기부품을 압수하자 시위대는 8월 13일 수데워의 사무실에 모여들었고, 울타리를 뜯어내며 그를 만나라고 요구했다. 경찰차 위에 올라선 그는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그에게 돌과 병을 던지며 대응했고, 결국 그는 피신해야 했으며 새로운 세금 제안을 철회해야 했다.

파티에서 성공한 민중 봉기가 8월 말 시작된 후속 운동에 동기를 부여한 것은 분명하다.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매일 시위는 새로운 세금 인상과 의원들의 특혜 수당에 분노한 시민들로 인해 곧 일상화되었다. 8월 28일 목요일 아침은 ‘평범한’ 시위 날로 시작되었다. 노동조합들은 임금 인상, 세제 개혁, 기존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며 자카르타 국회 건물 밖에서 평화롭게 집결했다. 노동자들이 해산한 후, 학생들은 건물 주변으로 몰려와 정치인들의 새 주택수당 폐지와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그날 밤, 사람들이 거리에 머물고 있을 때, 21세의 오줄(온라인 오토바이 배달/택시 서비스)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은 음식 배달을 하던 중 14톤 경찰 물대포에 치여 사망했다. 동료 한 명은 다리가 부러졌다.

1998년 민주화 운동 학생 활동가 실종 사건 연루로 당시 최강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장군 직에서 해임된 프라보워 대통령은 오조르 운전사 사망 소식에 ‘충격과 경악’을 표했다. 그는 침착함을 촉구하며 아판의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반도 전역에 걸쳐 갑작스럽게 발생한 무장 세력의 행동으로 인해 그는 살해된 운전사의 가족을 방문해 평생 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해야 했다.

아판의 장례 행렬은 수백 명의 녹색 제복을 입은 오졸 오토바이 운전자들로 이루어졌다. 이 소외된 노동자들은 매일 인도네시아의 극심한 불평등과 마주한다. 그들은 고급 쇼핑몰에서 식사를 픽업해 중산층 가정에 배달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해, 2024년 12월 8일 오졸 기사 다원 망구두트 시만주탁이 매단에서 고객 주문을 기다리다 굶어 죽었다. 사망 전날 밤 그는 친구에게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6개월 후인 2025년 5월 20일, 오졸 온라인 플랫폼 소속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18개 도시에서 거리로 나섰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운전자 연합은 근로자들이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있어 최소 12명의 조합원이 피로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이 운전자들은 국가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수천 명의 다른 이들을 대변한다. 수년간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해 왔으나 최근 세금 인상과 임금 삭감으로 고통받았다. 그들은 2025년 봄기의 선봉에 섰다.

대통령의 진정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았다. 아판 살해 사건 이후 '살인자 (Pembunuhan)'라는 낙서가 여러 도시 거리에 갑자기 등장했다. 주요 학생 단체는 모든 시민에게 거리로 나와 함께할 것을 촉구하며 "보호해야 할 기관이 제복을 입은 사형 집행자로 변해 민간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9일 금요일,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시위가 조직되었다. 자카르타의 국회의사당이 포위되고 점거당했다. 45개 이상의 버스 및 지하철 역이 파괴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소와 선별된 경찰 건물들도 훼손되었다. 동자카르타에 위치한 대형 경찰 본부의 지하층과 1층은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아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자카르타 경찰의 정예 기동대(Brimob) 본부 밖으로 모여들었고, 경찰이 최루가스로 대응하자 시위대는 폭죽을 던졌다. '살인자'를 외치며 결연한 시위대 일부는 악명 높은 부대의 문을 부수려 했고 건물 외벽의 간판을 뜯어내기도 했다. 시민 대다수는 시위대를 지지했다. 한 지역에서는 피난민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해 보안군 진입을 막았다. 여성들은 빗자루로 당국자들을 찌르며 쫓아냈다.'

국가는 말 그대로 전국으로 번진 불길 속에 갑자기 휩싸였다. 서자바의 마르타람과 반동에서는 지역 의회 건물이 불에 탔다. 시위는 솔로, 마겔랑, 말랑, 벵쿨루, 페칸바루, 북수마트라의 메단, 중자바의 세마랑, 파푸아의 마노크와리 등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다. 동자바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수라바야에서는 시민들이 경찰 본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최루탄과 물 대포에 맞서 폭죽과 나무 봉동으로 맞섰다. 전투 중 그들은 울타리를 파괴하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질렸다. 요그야카르타에서는 시민들이 5시간 동안 지역 경찰청 본부를 포위했다. 정부 차량 여러 대와 경찰 서비스 센터, 교통 초소가 불에 탔다. 물 장벽도 공격을 받아 북부 순환 도로가 폐쇄됐다.

다음 날인 8월 30일 토요일에도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 표출됐다. 술라웨시 마카사르의 지역 의회와 시의회 건물이 있는 대형 건물들이 불에 탔다. 화재에 갇힌 공무원 3명이 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경찰 간첩으로 오인되어 군중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조코 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솔로에서도 의회 건물이 불에 탔다. 녹색 재킷을 입은 오조(Ojol) 운전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군중이 치례본에서 의회 건물을 습격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법원 문서와 의자, 책상 등을 포함한 의회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롬복 섬 마르타람에서는 시

위대가 거대한 지역 의회 건물을 불태워 잿더미만 남겼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부 자바 폐 칼롱간의 의회 건물도 불에 탔다. 잠비와 수라바야에서는 부지사 관저가 화염에 휩싸였다. 전국적으로 최소 42개 건물, 32개 경찰 초소, 수십 대의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가 불에 탔다. 폭동기간 동안 총 1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명은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 1,0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3,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8월 30일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국가 경찰 수장과 군사령관은 살인적인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를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을 비난했다. 8월 31일 새벽이 되자 충격에 빠진 시민들은 수많은 도시에서 불탄 건물 잔해 수십 채, 돌에 둘러싸인 그을린 차량들, 그리고 거리를 뒤덮은 병 조각들을 목격했다. 텔레비전 뉴스팀이 거리 싸움으로 인한 피해를 취재하는 동안, 그들의 헤드라인은 일관되게 '무정부주의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선언했다. 피해액은 5,4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개혁 시행

8월 30일 오후 늦게,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도한 경찰 행동을 비난하고 평화적 시위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불길하게도, 그는 일부 시위가 '반역과 테러리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통과시킨 월별 생활 보조금을 취소하고 정부 지원 해외 출장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정당들은 일부 당원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며, 해당 당원들은 '감수성 부족'으로 징계를 받았다.

청소반은 불탄 차량을 치우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거리 구급대 조직에 따르면 수백 명의 부상자 중 수십 명이 여전히 입원 중이다.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과 아판 살해에 연루된 경찰의 처벌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아판 살해 현장을 목격한 한 증인은 브리모브 차량이 '모인 군중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질주했다'고 공개적으로 진술했으며, 이 주장은 영상 기록으로 입증되었다. 당국은 운전사 사망과 관련해 '윤리적 문제'로 브리모브 경찰관 7명을 구금했다. 당연히도 정부 수사관들은 9월 2일이 되어서야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 발표했는데, 그 인물은 로마트 준장이었다. 앞좌석에는 코즈마스 카주가에 경찰청장도 동승하고 있었다. 코즈마스는 경찰에서 제명되었으며, 그와 로마트는 형사 고발을 받게 될 것이다.

프라보워가 새로운 주택수당을 철회하고 전액 지원 해외 출장 중단을 선언한 후, 최소 5명의 의원들이 제재를 받았다. 에코는 국민위임당(PAN) 사무총장직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결정적 계기는 의회에서 주택수당 인상 축하 춤을 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코는 이에 분노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아흐마드 사로니 역시 소속 정당인 나스뎀당으로부터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 입혔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요구받았다. 또 다른 당원 우야 쿠야는 '그냥 춤추세요, 여러분은 하루 300만 루피아(약 20만 원)가 많다고 생각했잖아요'라는 자막과 함께 춤추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 역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프라보워가 시위를 '반역과 테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새로운 탄압 조치가 시행됐다. 수백 명의 중무장 경찰로 구성된 새로 창설된 3개 기동 순찰대가 자카르타를 순찰 중이

다. 국가 경찰청장은 브리모브 본부에 진입하는 자에게 고무탄 발사를 지시했다. 인도네시아 대학을 비롯한 다수 학교는 일주일 동안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자카르타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명령받았다. '핵심 활동가'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연행됐다. 거리가 조용해지자 국가 운영은 정상화되었다.

다수의 비정부기구(NGO)와 싱크탱크가 시위 진정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초기 시위 요구 사항에는 1998년 봉기 당시 발생한 168건의 강간 사건을 부인한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의 체포, 광범위한 부패 의혹을 받는 조코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리스트오 경찰청장의 해임 등이 포함됐다. 9월 1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그룹이 가장 주목받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9월 5일까지 시행될 17개 단기 개혁안과 향후 1년 내 추진될 8개 중대 정책 변경을 제안한 것이다.

며칠 만에 국회는 이미 시행된 의원들의 주택수당, 해외 출장비 및 기타 특혜 폐지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며 신속히 대응했다. 그들은 윤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격 정지된 의원들에게 향후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입법 과정에 '의미 있는' 대중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적 해결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사소한 변화들은 신속히 의무화되고 널리 홍보되었지만, 정부의 대응에서 누락된 핵심 쟁점들은 군대의 민간 기능 철수, 의미 있는 경찰 개혁, '공정한 노동 조건' 보장, 재산 취득의 합법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자산 몰수법 제정 등이다. 수년간 역대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을 약속해왔지만, 아직 입법화되기는커녕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거의 모든 수감자를 석방했지만, 봉기의 핵심 인물로 간주되는 수십 명은 계속 구금 중이며, 선동자로 여겨지는 활동가 6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 폭력 근절, 인권 유린을 자행한 모든 경찰관 체포, '합리적인' 임금 등 나머지 17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동조합과의 회의가 열렸지만, 그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아르키펠라고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 9월 1일 월요일 자카르타에서는 수십 명의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명 이상의 시위대가 국회 밖에서 집결했으며, 팔렘방에서는 수천 명, 마카사르, 족자카르타, 보르네오 반자르마신에서는 수백 명이 집회를 열었다. 평화적 시위는 용인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은 인도네시아 여성 연합이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여성들이 9월 1일 월요일 '국가의 더러움과 경찰 탄압을 쓸어내겠다'며 빗자루를 휘둘렀다. 곧이어 학생들이 의회 앞에서 '소풍'을 벌였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비정부기구(NGO) 지도자들은 체포되었다. 9월 첫 주 동안 40명 이상의 온라인 '선동자'가 경찰에 구금되었다. 프라보워는 시위 중 부상당한 모든 경찰관,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는 자들을 포함해 승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7-8 요구사항은 매일의 철야 시위와 시위를 계속 촉발하고 있지만, 대중의 열의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거리 시위와 약탈은 분명히 엘리트와 중산층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 봉기는 오로운 전자와 소외된 계층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자부심을 제공했으며, 이는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다. 인도네시아 내전 이후 원피스 깃발이 여러 나라에서 계양되었다. 프라보워는 이미 두 차례 중요한 입장을 변복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된 중국 방문을 취소했음에도, 9월 2일 공직자 해외 출장 중 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꿨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처음에 아판의 가족에게 동정을 표했지만, 8월 30일에는 '무정부주의적 행위', 공공시설 파괴, 공공 및 사유 재산 약탈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폭력이 더 살인적으로 변할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9월 8일, 평소 중도 성향의 <자카르타 포스트>는 상류 중산층이 빈곤층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봉기를 '파괴 행위, 약탈, 폭도들의 공격'으로 묘사하며 편집자들은 '노동조합이 한 걸음 물러서서 조합원들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 전체라는 더 큰 그림을 보라'고 촉구했다.

엘리트의 오만이 대중의 재반응 촉발

학생들이 의회 해산을 요구하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아흐마드 사로니는 그 관점을 '어리석은 사고방식…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명청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했다. 사로니는 이 발언을 반복한 뒤 싱가포르로 떠났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분노한 수백 명의 군중이 그의 사저로 밀려들었다. 군인들이 집을 불태우지 말라고 간청하는 가운데, 그들은 사저를 약탈했다. 군대는 사람들이 옥조, 냉장고, 세탁기, 가구, 고가의 디자이너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지켜봤다. 3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계도 약탈품에 포함됐다. 해방된 달리와 루피아는 공중에 던져져 몰수된 현금을 모두가 나누도록 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이며 인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에코 파트리오는 급여 인상안이 통과된 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댄스 파티의 DJ를 맡았다.

그의 노골적인 축하 행보에 사람들이 그의 자택으로 몰려들었다. 그는 시위대에게 "모두가 콘텐츠를 만든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가 중국으로 떠난 후, 자카르타에 소유한 여러 주택 중 하나인 그의 자택이 약탈당했다. 사람들은 재무장관 스리 물야니와 우야 쿠야의 집에도 몰려들어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갔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의 무분별한 발언은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했다. 프라티크노 인간개발부 장관은 한 기자가 어린 아이를 죽인 큰 벌례에 대해 질문하자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프라티크노는 웃음을 터뜨리기 전 자신의 '피곤한 눈'을 언급했다. 5살짜리 아이 라야는 결핵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한 후 벌레가 그녀의 코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사망 후 약 1kg에 달하는 촌총이 시신에서 발견됐다. 보건부 장관은 이후 사망 원인이 기생충이 아닌 감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집이 약탈당한 후, 20년간 국가 재정 건전성의 수호자로 높이 평가받던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다. '법과 이성, 문명은 내 소유물과 함께 사라진 듯

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인간성은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남긴 상처와 산산조각 난 존엄성, 이건 터무니없다.' 그녀가 알았더라면, 불과 며칠 뒤 네팔의 비슈누 프라사드 파우델 재무장관이 분노한 시위대에게 속옷만 입은 채 거리에서 모욕당하고 강으로 쫓겨 헤엄쳐 도망가야 할 운명임을. 수정구슬이라도 있었다면, 인도네시아 수많은 이들이 겪는 극심한 빈곤, 아이들의 발육 부진, 그녀의 정책이 생명의 경계에 선 이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언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8월 13일 세금 납부가 이슬람 자선 기부(자카트)와 기부 재산(와크프)과 '동일하다'고 단언했다. 8월 15일에는 2026년까지 세수를 13.5%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모욕으로 여겨진 반면 의원들은 자신들의 부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했다.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 구도 속에서 프라보워는 의회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연정'을 구축하고 있다. 이 압도적 다수에는 두 가지 뚜렷한 효과가 있다.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가졌으며, 반대 세력은 거리로 나서는 것 외엔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음모론이 난무한다. 조코위와 '솔로 쟁'이 8월 25일 집회를 후원해 부통령인 아들 기브란을 부각시키려 했는가? 군부가 프라보워 편에 서서 그의 반대자들(조코위 지지자들)에 대한 시위를 유도하려 하는가? 때로는 군인들이 약탈을 방관하며 시위자들에게 음료와 돈을 나눠주기도 했다. 거리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자카르타 주유소에서 체포된 군 정보 장교는 누구였을까? 조코위와 경찰 진영 대 프라보워와 군 진영 간의 권력 다툼이 진행 중인 것인가?

엘리트들의 음모와 상징적 개혁이 인도네시아 시위를 억누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개혁이 일부 사람들을 달랠 수 있겠지만, 다른 이들은 의회의 책임성 강화와 경찰 개혁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빈곤층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가난한 삶을 다시 받아들일까? 분명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구조적 불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계엄령이 도래할지, 아니면 빈곤 퇴치가 이루어질지 논쟁한다. 인도네시아는 생존의 가장자리에 놓인 수백만 명의 피라미드 정점에 아홉 가족, 이른바 '아홉 용'이 군림하는 거대한 국가다. 그 체제가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폴 오배니언은 사회 운동에 참여해 온 오랜 조직가이자 급진적 학자다. 본 글은 2025년 9월 28일자 <뉴 폴리틱스>에 처음 실렸다.

네팔: Z세대여, 에로스 효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네팔 Z세대의 봉기는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고 마찬가지로 빠르게 흩어졌지만, 이는 허공에 떨어진 것이 아니며 분명히 이후의 흐름에 각인을 남길 것이다. 이 나라는 최근 몇 차례의 봉기가 매번 정부 혁혁에 기여한 역사를 지녔다. 1990년과 2006년의 자나 안돌란(Jana Andolans)은 결국 2008년 군주제 폐지에 성공했지만, '민주주의'는 부패와 친인척 우대 관행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도로와 전력 공급은 개선되었을지 몰라도,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한 높은 실업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정부 관료와 부유층 자녀인 '네팔 베이비'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 '화려한' 사진을 게시하며 대다수 청년이 겪는 빈곤을 조롱하자, 반란은 임박했다.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전국적 시위를 촉발하며 불씨가 되었다. 소셜미디어가 혼란에 일조했을지 모르나 근본 원인은 만연한 부패, 높은 실업률, 엘리트와 빈곤층 간 삶의 기회 격차에 있다.

스리랑카(2022년 3월), 방글라데시(2024년 6월), 인도네시아(2025년 7월)에서 발생한 최근 폭발적 사태들은 모두 네팔의 최신 Z세대 혁명을 예고했다. 네팔 시위대 다수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와 네팔 모두에서 시위대 머리 위에는 자국 정부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원피스 깃발이 휘날렸다. 최근 발생한 이 네 차례의 봉기 모두 중앙집권적 지도부나 전통적 정당의 개입 없이 발생했다. 각 사건은 예고나 의도 선언 없이 하룻밤 사이에 폭발했으며, 정부는 다가올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네팔 Z세대 시위대, 바라트푸르 마하나가르팔리카 사무소 앞
(사진)**

우리는 지금 부패한 정부에 맞선 또 다른 동시다발 봉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같은 화산 폭발은 다카와 카트만두의 정권을 쓸어버렸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개혁을 콜롬보와 자카르타에 강요했다. 방글라데시의 소액대출 선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는 2024년 8월 8일(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의 인도 망명 이후) 임시 정부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스리랑카에서 재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매우 진보적인 무소속 좌파인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네팔에서는 전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가 2026년 3월 5일로 예정된 선거까지 임시 총리로 선출되어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그녀가 '모든 부패 정치인'을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네팔을 주도할 세력이 군주제 지지자들인지 진보 세력인지도 불확실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정부의 긴축 정책, 특히 사회 복지 서비스 삭감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격화되며 '모든 것을 막아라(Block Everything)' 시위가 확산되었다. 9월 10일 550개 지역에서 최소 17만 5천 명이 거리로 나와 교통을 차단했다. 8만여 명의 경찰이 섬광탄, 곤봉, 최루가스를 동원해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흐름을 유지했다. 약 500명이 체포됐다. 파업

중인 병원 노동자들은 동부 파리의 테농 병원 근처에서 봉쇄 운동에 합류했다. 즐겁고 북적이 는 집회에서 오픈 마이크와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Rage Against the Machine)의 음악 을 연주하는 밴드는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철도 노동자들의 총회 소집 호소에 응답한 수백 명이 북역(Gare du Nord)으로 모여들었으나, 대거 투입된 경찰 차량과 오토바이 기동대에게 오히려 봉쇄당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에서 최근 발생한 봉기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막아라’ 운동은 좌파 정당들과 거리가 먼, 명백히 지도부가 없는 민중의 급상승이다. 오늘날 이러한 정의 운동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세계 한 곳에서 터져 나온 폭발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 과거 에로스 효과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면, 지니를 병 속에 다시 넣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단 반란이 일반화되면 절대적 승리나 살인적인 국가 폭력 없이는 이를 막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조지 카시아피카스의 이 글 초고는 2025년 9월 15일자 카트만두 포스트에 처음 실렸다.

에로스 효과

조지 카시아피카스

에로스 효과 개념은 원래 1968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혁명적 열망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정립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렌즈를 통해 Z세대의 반란을 살펴봐야 한다. 에로스 효과는 수십만 명이 공공 공간을 점거하고 완전히 다른 정치적 현실을 요구하며 갑작스럽고 동시적으로 국제적으로 등장한 현상,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반란, 국가와 민족적 경계를 넘어 수십만 명이 서로를 직관적으로 동일시하는 현상, 새로운 가치와 상징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신념, 그리고 일상적 루틴의 중단 속에서 다시 한번 구체화되었다. 허버트 마르쿠제를 따라, 나는 에로스 효과의 순간에 자유에 대한 본능(충동)적 욕구가 집단적 현상으로 승화된다고 이해한다.

1968년 이후 에로스 효과의 다른 순간들은 2011년 아랍의 봄과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된 월가 점거 시위, 사파티스타 운동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진 반세계화 고조,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필리핀(1986), 한국(1987), 베트남(1988), 티베트와 중국(1989), 네팔과 방글라데시(1990), 태국(1992) 등이 포함된다. 독일 아우토노멘, 반세계화 운동, Z세대 등 1968년 이후의 운동들은 모두 자발성, 자율성, 다양성, 연대라는 동일한 근본적 문법을 드러낸다.

에로스 효과는 내가 『1968년의 전지구적 상상력』을 집필하던 중 처음 눈에 띄었다. 캘리포니아 오션 비치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며 열두 개국에서 수집한 연구 노트 더미를 펼쳐놓고 있을 때, 자발적 봉기, 파업, 공공장소 대규모 점거가 서로에게 미치는 구체적 동시적 연관성을 발견하며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했다. 그 세계사적 시기 동안 수백만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며 갑자기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 그들의 행동은 특정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조건보다 타인과의 유대감과 자유에 대한 사랑에 더 기반했다. 이러한 행동을 주도한 중앙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세계의 방향을 전쟁에서 평화로, 인종 차별에서 연대로, 외부 지배에서 자결권으로, 애국주의에서 휴머니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보편적 관심사는 국가적 쇼비니즘, 계층적 위계, 엘리트 지배와 같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들이 부정되는 동시에 일반화되었다.

에로스 효과가 활성화되면 인간 간의 사랑과 연대가 기존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갑자기 대체한다. 경쟁은 협력으로, 계층은 평등으로, 권력은 진실로 대체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많은 미국인의 애국심은 베트남 국민과의 연대에 밀려났고, 인종주의 대신 많은 백인 미국인들은 베트남인의 생명도 미국인의 생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반대되는 지속적인 미디어 공세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지도자 호찌민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닉슨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높았다. 에로스 효과의 순간들은 수백만 명의 행동에 구현된 운동의 열망과 비전을 드러내며, 이는 지도자나 조직, 정당의 선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다.

조지 카시아피카스, www.eroseffect.com

모로코 Z세대: 지나치게 인본주의적 – 지나치게 인간적.

권위주의 국가 대 거리 운동

마티 몬지브

2025년 8월. 매일같이 내리쬐는 무더위에 숨이 막히는 아가디르 시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산불처럼 번져 나간다.

며칠 사이에 하산 2세 주립 지역 병원에서 여덟 명의 여성이 출산 중 사망한다. 수백 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다. 경찰이 개입하자 분노는 더욱 격해진다. 독립적인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과 시민사회단체, 좌파 활동가들은 지역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시도한다. 이에 따라 아가디르 지역을 시작으로 모로코 전역으로 연대 운동이 확산된다. 이 운동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된다.

2025년 9월 27일, 평화적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첫날이다. 유일한 폭력적 행위는 당국 측에서 나왔다. 그들은 시위대를 구타하고, 때로는 모욕하거나 체포했다.

불과 몇 주 만에 6,000명이 체포되었고, 다수가 부상했으며, 최소 한 명은 당국이 '폭력적'이라고 규정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사망했다. 그는 촬영을 멈추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았다. 그는 영화학과 학생이었다[‡]. 이 사건은 더욱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서론

이 지역은 불과 2년 전 끔찍한 지진(사망자 약 3,000명, 부상자 5,000명)¹을 겪은 바 있다. 지진은 대규모 파괴(주택 60,000채 붕괴 또는 심하게 손상)를 초래했으며, 특히 가장 가난한 가정과 소외된 마을 및 작은 마을에 큰 타격을 주었다. 모로코 관료제의 전설적인 무기력함으로 인해 피해 주민 상당수는 여전히 여파로 고통받고 있다. 2년 전 이 재해는 의류, 식량, 금전 기부²를 통한 대규모 민중 연대 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8가구를 덮친 새로운 비극 앞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온라인에서 활발한 항의와 토론을 위한 가상 운동이 급속히 등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의 이념적·윤리적 내용과 세대적 기반은 전 세계적으로 'Z세대'라는 가치 아래 활동하는 사회운동들과 유사하다.

점점 더 많은 젊은 모로코 인터넷 사용자들이 여덟 여성의 죽음과 관련된 상황을 논쟁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것이다. 논쟁은 분노와 함께 전국적 규모로 확대된다. 보건에서 교육으로, 나아가 모든 악의 근원으로 인식되는 체제의 부패 문제로 확산된다³. 대부분의 참여자와 행동 촉구자들은 전문 혁명가가 아닌 인간주의적 감성을 지닌 애국자들이다⁴. 실제로 이는 국기와 기타 모로코 국가 상징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최초의 전국적 반대 운동이다.

(‡) 부록

GenZ212의 정치 담론 예시

알하우즈 지역(모로코) 지진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하는 GenZ212 성명서

« 알하우즈 문제… 국가적 문제

GENZ212 운동은 알하우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형제자매들과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연대를 표합니다. 그들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분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심각한 발전 격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우리가 오랫동안 규탄해 온 '두 속도의 모로코'를 냉혹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국가적 우선순위 재편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시급한 국가적 필요임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동참하며,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진 발생 2년이 넘도록 수천 가정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재건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1,200억 디르함 규모의 재건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원조 분배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질문에 답변 대신 억압적 제한이 가해지는가?

우리는 이 농성을 투명성, 책임성, 부패 척결을 위한 새로운 요구로 지지한다—이 나라 모든 국민을 위한 존엄과 정의를 위해. »

2025년 11월 2일, GenZ212 지지자가 WhatsApp을 통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성명서

라바트 의회 앞 (사진: 무니르 네디)

2011년 2월 20일 운동(M20F)은 시위에서 국기를 내걸지 않은 유일한 아랍의 봄 운동이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젊은이들에 의한 거리 시위 촉구가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Z세대의 주장은 교육, 보건, 고용을 포함한 더 나은 사회 서비스 요구로 요약될 수 있다. 사이버 활동가들은 주로 디스코드 플랫폼에서 소통한다. 회원 수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천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증가한다. 정부 기관과 당국에 가까운 언론은 당황하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⁵. 실제로 동명의 운동은 스리랑카와 네팔에서 정부를 전복시켰으며,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곧 그렇게 할 위기에 처해 있다⁶. 이 운동은 9월 27일과 28일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헤르, 우지다, 마라케시 같은 주요 도시와 벤슬리만 같은 소도시에서 시위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본 논문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라바트에서 저자가 직접 관찰한 운동 현장
- 운동 창시자 및 지지자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 모로코 Z세대 운동 활동가 3명과의 비지시적 대면 인터뷰
- 모로코 및 국제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
- 모로코 및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사회운동에 관한 학술 연구

(A) GenZ212의 정체성: 분산에서 통합 동력으로

> 단결을 향하여

9월 동안 청년 단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이트나 계정이 시위 호소를 시작하거나 전파했다. 초기 그룹 중에는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턱톡⁸에서 활동한 '모로코의 목소리 그룹'이 있었다. 해당 계정은 익명이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이름이나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단체의 상당히 불안정한 확산 속에서, 9월 중순이 되자 활동가 수와 웹상 역동성 측면에서 한 단체가 두드러지게 부상한다. 이 운동은 결국 'GenZ212'라는 이름 아래 결집하여 집단으로 자신을 표방한다. 우리는 이를 모로코 Z세대 운동 또는 모로코 청년 운동이라 부르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유사한 청년 운동들과 구분할 것이다. 전 세계 Z세대 운동과 마찬가지로 모로코 활동가들도 대부분 비당파적이며 심지어 비정치적이다⁹.

> 정치적이지만 형태 없는 반대 정체성

1980년대 이후 모로코에서는 대규모 평화적 비밀 정치 조직이 무허가 시위를 조직하는 사례가 없었다. 모로코 법은 농성에 대해 허가나 통보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국은 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야당의 농성을 금지한다.

사회관계의 디지털화가 두드러지는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은 가상 공간을 행동의 영역으로 삼는다. 이 공간은 익명성 덕분에 자율적(다른 세대에 비해)이면서도 자유롭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수평적(사회적 권위 부재: 연장자, 교사, 고용주, 선출직 공무원, 노조 지도자)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과 주체성은 지역적(모카뎀, 정치 지도자, 동네 '큰형님') 및 중앙적 통제 메커니즘을 벗어난다. 결과적으로 이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성인 및 체계적 구조의 담론적 통제를 벗어난다.

활동가들의 사회학적 구성은 다양하다. 일부 주도자들은 중산층 출신에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아가디르와 탕헤르 주변 지역에서 사법 당국에 회부된 젊은 시위자들은 가난한 가정 출신이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다.

구조적으로 이 운동은 지도자가 없으며 정치적·시민적 중재(매개)로부터 자유롭다. 2월 20일 운동과 달리 모로코 Z세대 청년들은 기존 시민사회단체의 물류나 슬로건, 독립 매체에 부분적으로라도 의존하지 않았다. GenZ212는 제도적 틀에 얹매이지 않은 프리랜서 역사적 행위자로 등장하며, 선거적 정당성과 사회경제적 효율성 모두 결여된 기관들의 부드러운 합의를 교란하는 행동을 보인다.

다수가 요구하는 집단적 대표성과 대변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체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모든 운동의 약점이다. 그들의 조직 방식은 무정부적 이지만 이념적 무정부주의는 아니다. 첨단 기술로 매개되는 이러한 소통 방식은 활동가들이 선택한 장점들—가상적 자유와 시간 절약(모로코 주요 도시에서 공개 회의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2~3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공간으로 넘쳐흐르며 거리를 점유해 집단적이고 다세대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사회적 정체성 구축의 현장이다. GenZ212는 군주제가 아닌 공공 정책에 도전한다. 일부 구성원들은 이 체제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비판하는데, 이는 사회 통제(이념적, 종교적, 정치적...)와 부의 재분배의 핵심 동력이다. 다른 이들은 “군주제가 안정의 보증인”이며 그 존재가 내전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이 청년 운동은 사회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의 확장으로서 형성된다. 이는 일반적인 담론적 틀과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세대의 일상적 행동을 초월한다. 이는 전체 사회의 요구가 수렴되는 공개 시위에서 구체화된다. 가상 공간에서 공공 공간으로 이동하며, 신체와 깨어나는 집단적 의식을 동원한다.

'어머니 사망 스캔들' 이후 여론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 네티즌이 “공공병원: 죽음의 병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퍼뜨리며 “기차는 시속 320km로 달리지만 병원은 멈춰 있다”고 외쳤다.¹⁰ 이 청년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텅헤르-카사블랑카 간 알보라크 열차와 또 다른 논란의 왕실 프로젝트인 모로코 월드컵 공동 개최 및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암시한다. 그는 종종 외면당하는 현실을 폭로하며 전국적 충격을 일으킨다. “북아프리카에서 모로코는 가장 불평등한 사회다.”¹¹

이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집단적 의식이 개인을 압도한다. 이는 감정을 정치적 의식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변증법적 순간이다. 모로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젊은 사이버 활동가들이 묻는다. 그들은 결론 내린다. 정치가 문제다. 조직된 공동체에서 정치는 전략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집단적 정서는 신속히 실천으로 변모한다. 집단적이고 이타적인 행동 욕구로. GenZ212의 출현은 좁고 순응적인 개인주의–즉 마르쿠제의 일원론적 개인주의, 물질적·비물질적 소비(담론, 가치 등)에 만족하는 태도–에 맞선다.

폭력적인 국가 대응에 분노하고, 강력한 정보 중심 미디어에 의해 감시당하고 비방받는 이 청년들은 맨손으로 테크노-관료적 지배를 구현하는 통제 장치에 맞선다. 그들은 병원과 교육의 현 상태에 대해 이 장치들을 책임자로 지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수한 사회적·개인적 관심 너머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깊이 감정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국가를 수치스럽게 만든 순간이 그들로 하여금 거리에서 국기를 사용하게 만든 것이다. 2011년 M20F는 더 보편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을 지녔기에 국가의 상징인 국기 사용을 피했다.

GenZ212는 프로그램화된 수동성과 사적 안락함의 베일을 찢고 가시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간다. 이 운동은 정치의 인간적 목적이 일상적 현실에 새겨지도록 요구한다.

(B) 상징적 불협화음

> 인본주의와 혁명 사이

사회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간화하며, 국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부패를 근절하며, “의회와 부패 정당을 해산하고 정부를 해임하며” 부패 정치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되, 이러한 개혁과 조치를 시행해야 할 군주제는 보존하자는 것이 GenZ212 논의에서 도출된 “프

로그램”이다.

10월 19일 라바트 회의에서 활동가들의 발언에는 인본주의, 부패, 불의¹²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했다. 모로코의 독립 시민사회와 야당 사회운동 진영에서 부패는 사회적 불의와 발전 저해의 구조적 원리로 인식된다. 2월 20일 운동(M20F), 히라크 리프 운동가들, 그리고 GenZ212가 공유하는 집단적 인식 속에서 부패는 정치적 지배와 불의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세 활동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부패(경제적·정치적)는 시민사회에 독소적이며, 집단적 무기력감과 파괴적 분노, 그리고 “각자도생”과 유사한 개인주의를 양산한다. 이들 활동가에 따르면, GenZ212와 M20F 같은 사회운동은 집단적 의식을 각성시켜 정의와 자유를 기반으로 사회 집단을 재건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재구성을 이루기 위해 GenZ212 청년들은 선배 운동인 M20F와 달리 왕실을 신뢰한다. 한 토론참가자는 “우리는 단순한 평화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일 뿐, 산으로 들어가 싸우겠다는 체 게바라의 결의는 없다”고 말했다. GenZ212는 국왕에게 보낸 첫 공개서한에서 사회 혁명적 제안을 포함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일부 제안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특히 국가 원수가 헌법적 권한을 초과할 것을 요구한다. 본질적으로 이는 이미 상당한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라는 요구에 가깝다. 특정 정치적 요구는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인 AMDH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그러하다.

따라서 개인적·집단적 해방에 뿌리내린 주관적 해방 욕구와 제약된 정치적 상상력 사이에는 상징적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이 정치적 지평은 주로 고통스러운 기억에 의해 형성된다. 아랍의 봄 봉기에서 유사한 청년 주도 운동이 내전에 빠지거나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시킨 트라우마적 결과들이다.

> 운명의 징조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가?

또한 종종 탈영토화되고 조직적으로 유연한 개혁주의적 집단행동과, 당국의 금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공 시위 자유에 대한 급진적 집착 사이에도 불일치가 존재한다. 활동가들은 왕이 아닌 그의 집행자들에게 신뢰를 표명하는데, 이는 가능한 예방적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정권의 억압적 잠재력을 실제로 운동을 '온건화'로 이끌어 실용적 현실주의로 향하게 한다.

기존 질서에 대한 이러한 적응적 비판과 함께, GenZ212는 주관적 해방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출한다. 앞으로 몇 주간은 격렬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GenZ 운동이 급진화의 길을 계속 걸을지, 아니면 탄압과 포섭 시도에 굴복할지가 드러날 것이다.

참고

‡ <https://www.facebook.com/share/r/1BDuDthYRP/>

?mibextid=wwXIfr

1. <https://transparencymaroc.ma/wp-content/uploads/2025/01/Rapport-Observatoire-du-seisme-2024.pdf>

2. https://www.lemonde.fr/international/article/2023/09/13/apres-le-seisme-a-u-maroc-un-immense-elan-de-solidarite-a-sa-facon-tout-le-monde-donne_6189208_3210.html

3. 모로코의 사회 운동은 일반적으로 부패를 사회적 불의와 후진성의 근간 중 하나로 인식 한다. 전제주의와 함께 부패는 모로코판 아랍의 봄인 GenZ212와 2월 20일 운동(M20F)의 집 단적 윤리, 세계관, 정치 담론의 핵심 요소이다. 예를 들어, M20F 지식인 중 한 명은 '부패의 몰락'을 목표로 한 운동의 행동에 관한 500페이지가 넘는 시집을 출간했다: 오마르 아우간, 『바라카: 2월 20일의 목소리 - 부패가 무너지게 하라』, 카사블랑카, 모로코 작가 연합, 2015.

4. GenZ212 운동가인 22세 아유브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를 움직이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건강, 교육, 인간 삶의 질과 가치 말이죠. 저 자신도 가족의 죽음과 공공 보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겪었습니다… 네, 젊은이들은 아가디르에서 사망한 여덟 명의 어머니들의 비극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GenZ212 운동가 3인과의 인터뷰).

5. Barlamane, « Dirha Ghirzouina », Rabat, 2025년 10월 25일.

6. 필자는 해당 사건을 직접 확인했다.

7. Medias24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사이트를 자동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통해 제작되었다. 2025년 9월 2일에 생성된 텔레그램 계정은 9월 16일부터 계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참조: <https://medias24.com/2025/09/25/genz212-moroccan-youth-voice-un-signaux-faibles-et-assourdissants-1-2/>

8. 미국에서는: “Z세대 청소년의 절반 이상(51%)이 양대 정당 어느 쪽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는 Z세대 성인의 4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https://prri.org/research/generation-zs-views-on-generational-change-and-the-challenges-and-opportunities-ahead-a-political-and-cultural-glimpse-into-americas-future/> (2025년 10월 25일 접속)

9. 10월 19일 토론에 참여한 7명의 청년(남성 5명, 여성 2명)은 자신들의 운동이 비이념적이고 비당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참석한 28명(적극 참여자 24명) 중 누구도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른 6명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부 노년 좌파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10. 모사이르의 저자 선언문 (GenZ212 활동가 3인과의 인터뷰…).

11. GenZ212의 모하메드 6세 국왕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fr.maghrebalaan.com/2025/10/03generation-z-hausse-le-tonmessage-direct-au-roi-mohammed-vi-le-gouvernementparle-de-dialogue-mais-cela-suffira-t-il-a-calmer-la-rue/>.

12. '둘름(Dhulm)'은 아랍-이슬람 전통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사회적·상징적·경제적·사법적 차원에 걸친 총체적 불의를 의미하며, 하위 집단의 경멸과 억압 경험도 포함한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무자히딘 칼라크(Mujahidin Khalaq)와 같은 현대 무슬림 좌파 운동이 이 개념을 이론적 도구와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세 초기 사회주의 국가인 카르

마티안(11~10세기, 바레인 및 알 이흐사)도 둘름 또는 유사 의미의 용어를 사용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참조.

마티 몬지브는 모로코 학자이자 활동가이다. 수년간 모로코 당국의 가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Z세대의 뿌리와 기초. 상식에서 정서성으로

알레한드라 펀토 소피아

이 글에서는 Z세대라 불리는 세대의 뿌리와 기초를 고찰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논증을 탐구할 것이다. 출생 이후 기술 경험에 몰입해 온 점(이전 세대와 달리), 지구 온난화 및 환경 위기 같은 윤리적·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참여, 사회 정의와 '소수자'의 가시성에 대한 헌신 등 주요 특징을 고려할 때, 논리적·존재론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구성할 수 있다.

1973년 암살당한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는 “젊으면서 혁명가가 아닌 것은 생물학적 모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비록 아옌데가 의사였기에 과학적 관점에서 이 발언을 접근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사회 변화와 집단적 정의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젊은이들은 생물학적 이유로 자본주의의 만연한 불의와 착취에 맞서 일어나 저항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성향은 순수히 생물학적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상에서 종종 얹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두 차원을 구분하겠다. 사회적 행동의 윤리적 차원과 정치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적 조건이다. 이 구분은 정치 사상, 특히 마르크스주의 이론 안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는데,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삶과 역사, 투쟁을 생산한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혁명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을 개념화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적 조건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이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해 온 한계를 접근하고 있음을 명백하다. 인류세(Anthropocene)와 자본세(Capitalocene)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한계, 즉 인류가 지구적 규모로 자연을 소비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정확히 가리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적 불의나 정치적 우연성에 대한 반란은 단순히 청년의 본성에 뿌리를 둔 것인가, 아니면 이 저항 속에 더 깊은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려면, 아마도 상반된 두 용어인 공감(empathy)과 자기애(narcissism)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강대국들의 지원이나 무관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1년 넘게 폭격과 기아로 아이들을 살해하며 자행한 집단학살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지구상의 생명을 인식하는 나르시시즘적 방식의 프랙탈로 볼 수 있다. 참호 속에서 요가를 하며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온주의 군대 내부에 무엇이 작용하는가? 이러한 행동은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위에 두는 계획이나 이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개인이나 국가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류 그 자체 위에 두는 것이다.

원피스 깃발을 대중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재확보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회학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표면 아래 숨겨진 깊은 감정 구조를 드러내는 깃발 같은 구체적 상징을 통해 삶의 정서적 차원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보여준다. 이 밑바닥에 깔린 '빙산'은 인간 포유류의 정서적 차원과 인간 본성 자체로부터 정치적 논쟁을 확장할 가능성을 상징한다. 여기서 '본성'이란 우리 생물학적·유기적·물질적 구현체로서 이 행성에 속함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적 궤적을 표현하는 인간의 내적 측면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왜 나는 원피스 깃발을 정서적 발현으로 묘사하는가? 21세기 디지털 세계 속에서 성장한 Z세대에게 만화와 그 영상화는 인간 영혼의 깊은 영적·도덕적 차원을 표현하는 아서왕 기사도 이야기의 현대적 대응물 역할을 한다. 원피스는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엄, 모험, 투쟁의 이야기로 남아 있는데, 이는 그들이 젊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 감정의 깊이는 사회적 변혁 시기마다 표면화되는 경향이 있다. 에로스 효과는 인간 정치 행동의 이중적 본성에 뿌리를 두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감정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이성적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정신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감정적 발현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인간 삶에 내재된 충동이다.

이 성찰은 순수 객관적 시각으로 Z세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인류세 맥락에서 인간 존엄성 그 자체가 정서적 깃발을 올리는 현상을 인식하려는 것이다. 원피스 깃발은 우리의 포유류적 본성과 생명의 보편성에 연결되는 정서성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 깃발이 휘날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그 정서적 의미의 힘은 동일하다.

알레한드라 펀토 소피아는 칠레의 철학자, 번역가, 활동가이다.

가자 학살에 맞선 캠퍼스 점거: 반복되는 역사

조지 카시아피카스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대규모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는 대중을 놀라게 했다. 중앙 조직 없이도 전 세계 100여 개 대학에서 건물 점거와 시위 캠프가 벌어졌다. 이어진 경찰의 진압으로 수백 명의 학생이 폭행을 당했으며, 수천 명이 더 체포되거나 수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캠퍼스 출입이 금지되었다. 운동이 심하게 탄압받는 가운데,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스라엘 정부의 정당성이 처음으로 의문시되기 시작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기소는 시온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세계적 거부감과 이제야 드러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연민을 반영한다.

현재의 시위운동에는 새로운 측면이 많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해 확산된 방식은 1970년 미국 전역 대학 파업과 놀라운 유사점을 보인다. 현재의 시위 물결이 가자지구에서 지속되는 학살에 의해 촉발된 것처럼, 54년 전 인도차이나에서 계속된 민간인 학살 전쟁과 흑표범(블랙팬서)당에 대한 경찰의 공격은 격렬한 국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침공으로 베트남 전쟁을 확대하자, 500여 개 대학의 400만 명 이상의 학생과 50만 명의 교수진이 전쟁 반대, 블랙팬서당 탄압 반대, 대학 전쟁 연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요구들은 가자 지구 학살 중단, 이스라엘 기업 투자 철회, 이스라엘 대학 관계 제한을 요구하는 현재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놀랍게도 두 운동 모두 본질적으로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극히 정치적이었다. 또한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 영웅적으로 지속된 특징을 공유한다. '세계적 봉기'를 최초로 탐구한 저서 『신좌파 상상력』에서 나는 국제적으로 확산된 반란을 "에로스 효과"라 명명했다. 사회 질서의 기본 전제와 가치에 대한 갑작스러운 의문 제기, 수백만 명이 일상적 관행과 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에로스 효과는 1960년대 이후의 시위 물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자 학살 반대 캠퍼스 시위가 일반화된 직후, 전 세계 동료들은 에로스 효과가 다시 활성화되었다고 언급했다.

캠퍼스 점거에 놀란 대학 당국은 1970년과 마찬가지로 시위대와 성실히 협상하기보다 경찰을 불러들이며 무의식적으로 운동 확산을 도왔다. 1970년 당시 캠퍼스 내 탄압은 훨씬 더 가혹했다. 5월 4일 오하이오 주립대 켄트 캠퍼스에서 주방위군이 학생 4명을 사살하고 9명을 부상시켰다. 10일 후 잭슨 주립대학에서는 미시시피 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두 명의 학생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12명이 더 부상당했다. 1970년 5월 한 달 동안 총 100명 이상의 시위자가 치안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주방위군은 16개 주에 걸쳐 20개 이상의 대학을 점령했다. 탄압은 정부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캠퍼스 파업 기간 동안 뉴욕시, 베를린, 세인트루이스 거리에서 반전 시위자들은 우익 노조 지도자들이 휴가를 준 건설 노동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여론은 시위자들을 향해 격노했다.

오리건 대학교 시위 야영지.(사진)

1970년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 인도차이나 전쟁은 종결되었다. 파업 발생 몇 달 만에 뉴헤이븐에서 재판 중이던 바비 실, 에리카 허긴스 등 흑표범당원들이 석방되었다. 일부 흑표범당원들은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당의 일부 프로그램은 실현되었다. 이 역사적 사례는 오늘날 시위자들의 열망이 아직 멀었음에도 미래에는 그들의 희망과 꿈이 거의 확실히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역사는 수년, 수십 년 걸리던 일을 몇 시간, 며칠 만에 이루기도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이루는 데 수년,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가자 지구 주민들의 지속되는 고통과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우익 정착민들의 계속되는 야만적 행위는 더 많은 시위를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끔찍한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텐트 캠프와 캠퍼스 점거는 새로운 우정과 연대의 유대를 형성했으며, 그 지속적인 영향은 아직 느껴지지 않고 있다. 대량 학살이 지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와 병행하여, 우리는 역사적 사례를 재조명함으로써 더 낙관적인 지평을 찾을 수 있다. 중동의 십자군 국가들은 193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최근의 캠퍼스 시위 물결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논의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끌어올렸다.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에 대한 미국의 자동적 지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수십 년간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의의 동맹국으로 순진하게 여겨왔다.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본질이 세상에 드러남에 따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점점 더 문제시될 것이다.

본문의 초기 버전은 2024년 5월 25일 <알 마야딘> 영어판에 게재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기업 귀족층, 그리고 세계의 이스라엘화

조지 카시아피카스

핵 버튼을 쥐고 백악관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든, 문제는 그 개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체제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와 최악 모두 미국이 보유한 막대한 경제·군사력이 한 개인의 손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는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널리 평가받는 존 F. 케네디 정권을 살펴보자. '카멜롯'으로 낭만화된 케네디 대통령 재임기는 낙관과 희망, 평화와 번영, '가장 뛰어나고 영리한 자들'의 통치 시대로 여겨진다. 그러나 JFK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인류를 사상 최대의 세계적 재앙에 가장 가까이 몰고 갔으며, 세계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잭 케네디는 또한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완곡한 이름으로 불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학 전쟁을 시작했다. 인류가 아는 가장 치명적인 화학 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을 사용해, 그는 '적'의 은폐를 차단하기 위해 베트남 시골 지역에 광범위한 제초 작전을 명령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민간인과 수천 명의 미군이 백혈병, 림프종, 암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이에 비하면 사담 후세인의 할라브자 학살은 미미하다. 후세인은 단 한 차례 공격을 지시한 반면, JFK는 수년간 지속된 제초 작전을 승인했다.

잭의 옹변이나 퍼스트레이디 재키의 교양과는 거리가 먼 현재 백악관 주인들은 교양 없고 교육 수준도 낮다. 그들은 지구를 모독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후진적인 악당들이다. 부와 권력에 집착한 그들은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노골적으로 표절했으며, 자녀들은 베니스 석호에서 보호종 오리를 사냥하고, 지중해 연안 부동산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레스 타인 학살을 불편한 장애물로 취급한다. 그들은 '최악의 무능한 자들'을 고위 권력 자리에 임명했다.

그들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비전은 아돌프 히틀러가 새로운 독일 제국인 '제3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과 무솔리니가 로마 세계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서약과 유사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명백히 미화된 과거를 향한 회귀이며, 유럽-미국 문화를 이상화한 우월 성 약속이다. 그 문화는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 아프리카 노예제라는 인류 역사에 오점을 남긴 범죄를 저질렀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제국적 전성기 이후 수세기에 걸친 쇠퇴는 20세기 파시즘과 나치즘의 등장을 가능케 한 구체적 역사적 조건이었다. 오늘날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쇠퇴는 너무나 명백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조차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는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되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군사 기지로 포위하고 경제를 봉쇄하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들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7억 명 이상의 국민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이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인구의 감소분 중 놀라운 4분의 3에 해당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은 급속히

추락 중이다. 세계인들은 미국-이스라엘 전쟁 기계가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을 공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스라엘 우선’ 정책과 무제한 군사 정책을 찬양하는 모습에 공포를 느낀다. 선거 기간 동안 그는 팔레스타인인 학살 의도를 숨겼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 지지와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케네디의 핵 위기를 연상시킨다.

트럼프의 경제 이해는 그토록 잘못되어 있어 자신이 중국의 부상을 돋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이 세계 무역과 제조업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돋고 있다는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미국을 다시 세계 최고의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목표 아래, 그는 외국 정부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한다. 미국 임금은 다른 대부분 지역보다 훨씬 높아, 여기서 제조된 제품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삭감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비싸질 것이다. 트럼프의 대학에 대한 전쟁은 이미 수천 명의 연구자들의 기여를 앗아갔다. 그의 반지성주의적 공격은 대학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미국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미국 문화의 미래적 세계적 영향력을 확실히 저해할 것이다. 수백만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삭감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나, 이는 미국의 장기적 혁신에도 해를 끼친다. 여기서도 그는 인공지능 및 기타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우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24년 선거에서 얇은 지지 기반(유권자의 32%만 득표, 1933년 히틀러보다 낮은 비율)을 바탕으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위협하고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제안했다. 인종차별적 강제 수용을 시행하도록 연방 요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그는 정부 요원들을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에 파견해 이민자들을 동물 취급하게 했다. 지구 온난화 관련 모든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텍사스 기상 예보관들은 최근 100명 이상이 사망한 홍수를 경고하지 못했다. 항공 안전 예산 삭감은 더 많은 치명적 추락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틀림없이 분명히 하자. 맹목적 열정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천만 광신적 복음주의자들이 초래할 위험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헌법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2028년 이후까지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그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 최빈 곤충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다. MAGA 정책이 장악할수록 경제적 불안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2026년 의회 선거 후 메디케이드 삭감이 시행되면 수백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게 된다. 대다수 국민은 더 적은 임금으로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세월 동안 일해야 할 것이다.

기업 귀족층의 평등 무시 행태는 엘리트 특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난한 이들을 처벌한다. 머스크, 베조스, 저커버그 등 신흥 귀족들은 각각 고작 백만 달러씩 내고 입회권을 산 뒤, 히틀러를 아부하며 추종했던 프로이센 지주들과 독일 산업가들처럼 트럼프 취임식에 아첨하며 줄을 섰다. 트럼프는 세계 최강 권력자 자리로의 두 번째 등극을 축하하며 총 2억 3,9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 관찰은 단순히 신귀족의 막대한 부의 부도덕성에 관한 것이지, 그들의 탐욕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이 아니다.

오래전 저명한 역사학자 배링턴 무어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즘이 본질적으로 20세기 귀족 통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프랑스와 달리 이 세 나라는 봉건제를 전복하는 혁명을 이루지 못했다. 무어에 따르면, 프랑스 귀족 2천 명의 단두대 처형은 아마도 20세기 프랑스가

파시즘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이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제단에 바쳐진 수백만 명의 희생에 비하면 작은 대가였다.

오늘날의 신흥 귀족층은 '테크노-봉건주의'가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형태라고 믿을지 모르나, 여전히 귀족 통치다. 그들의 꿈은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권력이며, 이는 평등과 정의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해야만 가능한 추구다. 엘리트들이 '자유'를 '부자들을 위한 자유'로 정의하는 관념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력과 부는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는가?

그들은 대중 운동의 폭발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이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을 법제화했다. 그들이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순간, 팔레스타인 인권 옹호자들의 그러한 자유를 파괴한다. 공개적 논의 없이 그들은 반유대주의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적 비판을 범죄 행위로 만들었다. 그들은 '반유대주의'를 이스라엘 비판으로 재정의하는 데 성공했는데, 사실 이는 특정 형태의 인종주의이지 정치적 관점이 아니다. 분명히, 신흥 과두주의자들의 반유대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살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서구 엘리트들이 구경하며 환호하는 가운데 가자에서 매일 학살을 당하는 셈족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말이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너무도 강력해서 조란 맘다니가 최근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집단학살에 맞서 출마하며 뉴욕 시장 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 선동가인 트럼프는 이에 대응해 이민자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부추기며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맘다니의 추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온주의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에 이어, 기업 귀족층은 세계의 '이스라엘화'를 강요해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공항 터미널 게이트에서 사랑하는 이의 도착을 맞이하거나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오늘날 공항은 신체 수색과 과잉 억압이 만연한 고도의 보안 구역이 되었다. 공공 공간은 점점 더 감시와 감청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무장한 불량 국가를 무장시키고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는 데 동의한 적이 있는가?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악영향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부과된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얼마나 더 참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21세기에 단두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꿈꿀 수 있지만, 누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분명 새로운 귀족층은 이전 세대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빼앗았으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만, 누가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암살자 루이지 망지오네가 누리는 인기는 기업 탐욕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준다. 오래전 심리학자 프란츠 파농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가해자를 마주할 때 느끼는 기쁨을 밝혀냈다. 만지오네의 행동은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 사이에서 행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개인적 정의 실현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히틀러, 도조, 무솔리니를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 수천만 명의 목숨을 대가로 치른 대전이 필요했다. 미국의 지배를 무너뜨리려면 비슷한 국제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적 보이콧 운동이 제대로 육성되고 널리 확산

된다면, 군사적 충돌을 피할 길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개인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단호히 거부한다면, 그들의 지배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보이콧처럼 전 세계적 보이콧이 미래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비폭력적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세계적 귀족 계급의 통치는 어떻게 종식될 수 있을까?

트럼프와 MAGA 신봉자들이 당장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는 우리를 기묘하고 신비로운 길로 이끄는 독자적인 교활함을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장 ‘성공’ 자체가 현재의 집단학살적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고립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거부하는 주관적 조건을 마련한다. 세계의 민족들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살인적인 악의 없이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인류는 거대한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본문 초고는 2025년 7월 15일 알 마야딘에 게재됨

후기: 타나토스의 효과

풀 메서스미스-글래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일부 지역이 일종의 에로스 효과를 경험하는 동안, 미국은 죽음과 파괴를 향한 충동인 에로스의 반대편인 타나토스의 확고한 지배 아래 있다. 무장한 가면 요원들이 표식 없는 차량으로 매일 거리와 직장에서 사람들을 납치하며,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자에게는 최루탄과 섬광탄을 투척하고 때로는 총격을 가한다. 미국은 잔혹함과 악의에 사로잡혀 있다.

트럼프 같은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그를 찬양하고 숭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파괴되거나 사라져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의 원초아(Id)가 현현한 존재이며, 미국이 진정 무엇인가(진짜 미국)의 최악의 측면이 극대화된 결과물이다. 트럼프는 추악한 미국인이며, 그의 수백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는 급격히 쇠퇴하는 미국의 상징적 인물로, 한때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분해되어 팔려나가는 현장을 대표한다.

트럼프는 미군 각 군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부의 적”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도시들을 군사 훈련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바로 다음 날, 국경수비대, 국토안보부, FBI 등 300명의 연방 요원들이 시카고 남부 주택 단지를 급습했다. 많은 요원들이 공중에 떠 있는 블랙호크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지붕에 착륙했다. 그들은 문을 밭로 차고 들어가 거주민들을 체포하며 총을 겨누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대부분은 아이들을 포함해 지퍼 타이로 묶였다. 요원들은 흑인 시카고 주민들과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분리해 많은 이들을 아무런 설명 없이 새벽 3시까지 구금했다. 이 주택단지에 대한 군사적 급습은 불과 며칠 전,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쓰레기 같은 깡패들이 시카고 시내를 마치 자기들 소유인 양 거닐며 마음대로 누구든 구금한 데 이어, 도시 외곽 구금 시설에서 그들의 존재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ICE가 계속해서 무장 공격을 가한 사건에 이은 것이었다.

한편 포틀랜드에서는 2025년 11월, 주방위군 병력 도착을 예상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국경 순찰대와 국토안보부 깡패들이 자신들의 시설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상황을 견디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멤피스에 주방위군 병력을 배치했다. 그들은 시카고와 포틀랜드, 그리고 추가 도시 목록에 있는 곳들에 병력을 배치하기 위해 사법적 장애물을 넘으려 하고 있다. 미국 권위주의 정권은 또한 2026년 봄까지 2만 명의 주방위군을 조직해 폭동 진압에 대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배치할 계획이다.

매일 전국 각지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새로운 납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동네에 최루탄을 살포하고,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사람들을 땅에 넘어뜨려 실종시키는 등. 11월 초 정부 셧다운으로 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현재 4천만 명 이상이 먹을 돈이 없다.

미국 도시에서의 군사적 탄압은 남미 국가들, 특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양쪽 해안을 따

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적·법적 절차 없이 자행되는 살인 사건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살해가 자행되는 동안 미군은 세계 최대 항공모함 배치를 포함해 군대를 증강 중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 이후 최소한 미국 우익이 장악하려 했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석유 부국이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속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 세력과 함께, 미국은 현 정권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는지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해외에서의 권위주의적 군사주의는 국내의 파시즘 전조를 강화한다. 백악관의 나치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 보좌관)는 행정부가 좌파와 전쟁 중이라고 여기며, 지난 8월 온순하고 대부분 위축된 민주당을 두고 “정당이 아니다. 국내 극단주의 조직이다”라고까지 말했다.

지금 미국에는 집에 머물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것(많은 미국인들이 그러는 듯하다)이 아니라, 전투적인 시위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민자들과 그들의 친구, 이웃, 동료 노동자, 그리고 동지들이 일어나 맞서 싸우고 있다. 이것이 희망의 이유다. 시카고의 리틀 빌리 지나 로저스 파크 같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ICE(이민세관집행국)의 납치에 맞서 순찰대와 지역 방어 조직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 신파시스트 거리 캠단인 패트리어트 프레이어와 프라우드 보이즈가 포틀랜드 시민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려 자주 찾아왔을 때, 주로 백인 중산층 포틀랜드 시민들은 그들을 무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단지 주목받고 싶어 할 뿐이다. 주목하지 마라”는 논리였다. ICE와 포틀랜드에 배치될 수 있는 주방위군을 두고 반복되고 있는 이런 공모적이며 파시즘을 조장하는 입장은,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는 모토를 가진 반인종주의 행동(ARA) 같은 단체들의 조직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 주변에서 활동했던 우리들의 정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ARA는 수년간 쿠 클럭스 클랜이나 네오 나치 단체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맞서 조직화하며, 그들의 운동이 소수 주변부 하위문화를 넘어 성장하지 못하도록 노력했다. 이는 그들의 조직 활동을 방해하고 공개 행사를 열지 못하게 하며 반동적 대의에 사람들을 모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ARA는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 미국에서 등장한 안티파의 선구자다.

시위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 ICE 시설에서 중무장한 연방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크리스티나 웬츠-그라프 / OPB)

우리가 ARA를 통해, 그리고 안티파(반파시스트운동집단)를 통해 맞서 싸웠던 이 반동적 신파시스트 사회 세력들이 이제 미국 국가를 장악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잔혹하고 반동적인 미국 사회의 일부가 돌아온 것이지만, 이제는 국가의 (이론상) 폭력 사용 독점권이라는 완전한 권력을 쥔 상태이다. 이는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웃, 동료, 친구,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며, 서로를 돌보고, 거리로 나서야 한다. 시위 중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친목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 동네와 직장에서 상호 지원과 지역 방어를 실천할 수 있다. 우

리는 스스로 그룹을 조직하거나 기존 단체에 합류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시카고 등지에서처럼, 우리는 ICE를 감시하기 위한 순찰대를 구성하고, 표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며 ICE 요원들과 맞서기 위해 신속히 동원될 수 있는 신속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의 친구, 연인, 동료,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다. 미국 전역의 표적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이러한 자발적 조직화는 지난 몇 달간 가장 큰 희망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에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집단적으로 무장한 납치범들에게 맞서고 쫓아내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순순히 집에만 있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자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방해해 온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작업장을 점거하고, 야생파업과 총파업을 조직하며, 거리에서 대담하고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큰 소리로, 창의적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GI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주방위군 병사들과 미군 병사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한다.

미국 베이 에어리어와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은 ICE에 맞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서로를 더 잘 돌보기 위해, 그리고 다른 세상을 향한 추진력을 창출하기 위해 총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을 조정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대안적 공간을 형성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 작업을 수행한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2025년 10월 두 번째 ‘왕은 없다’ 행진에 참여한 700만 명 이상처럼 전투적으로 거리로 나선다면, 그리고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 조직화를 시작하며 봉쇄, 파업, 점거를 통해 국가와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마비시키고, 썩어가는 낡은 세상의 병든 껍질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면, 에로스가 여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촉박하며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

풀 메서스미스-글래빈은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의료 종사자로 일하는 오랜 반권위주의 운동가다.

그는 『무정부주의론 관점』 저널을 발행하는 집단의 일원으로, 이 저널은 곧 『비전과 개입: 무정부주의론 관점 30년』(AK 프레스, 2026)이라는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방글라데시(표지):

2024년 셰이크 하시나 총리 사임 후 시위대의 승리 행진.

레이한9d 촬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인도네시아(표지):

인도네시아에서 원피스 깃발을 휘날리는 시위대.

스리랑카 의회 앞 (29면):

2022년 4월 13일 스리랑카 대통령 비서실 앞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사진: AntanO - 자체 제작,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116857384>

바라트푸르 마하나가르팔리카 사무소 앞의 네팔 Z세대 시위자들 (50페이지):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25_Nepalese_Gen_Z_protesters_infront_of_Bharatpur_mahanagarpalika_office.jpg

원피스 깃발을 휘날리는 시위자 (53페이지):

아나돌루 통신사 제공, Heute 경유

라바트 의회 앞 (60페이지):

무니르 네디 촬영,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위키미디어 공용 경유

캠퍼스 점거 (74페이지):

사진: Spacemace1, https://en.wikipedia.org/wiki/2024_pro-Palestinian_protests_on_university_campuses#/media/File:Student_encampment_at_the_University_of_Oregon.jpg

오리건주 포틀랜드 ICE 건물 앞 시위 (87쪽): 사진: Paul Messersmith-Glavin.